

## 韓國 西南海 섬마을의 景觀體系解釋

— 珍島郡 鳥島群島, 薪岸郡 飛禽, 都草, 牛耳島 및 黑山群島를 중심으로 —

김 한 배

대구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

### A Landscape Interpretation of Island Villages in Korean Southwest Sea

Han-Bai,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aegu University

#### ABSTRACT

The landscape systems in Korean island settlements can be recognized as results of inhabitants' ecological adaptation to the isolated environment with the limited natural resources.

Both the fishery dominant industry in island society and ecological nature of its environments seem to have influenced on inhabitants' environmental cognition as well as the physical landscape of island villages such as its location, spatial pattern in each village, housing form and so on.

This study was done mainly by both referring to the related documents and direct observations in case study areas, and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general, the landscape of an individual island seems to take more innate characteristics of island's own, corresponding to the degree of isolation from mainland. That is, while the landscape of island in neighboring waters takes both inland-like and island-innate landscape character at the same time, the one in the open sea far from land takes more innate landscape character of all island's own in the aspects of village location, land use and housing density etc.
2. The convex landform of most islands brings about more centrifugal village allocation than centripetal allocation in most inland villages. And thus most villages in each island face extremely diverse directions different from the south facing preference in most inland rural villages.
3. Most island villages tend to be located along the ecologically transitional strip between land and sea, so called 'line of life', rather than between hilly slope and flat land as being in most inland village locations. So they are located with marine ecology bounded fishing ground ahead and land ecology bounded agricultural site at the back of them.
4. The settlement pattern of the island fishing villages shows more compact spatial structure than that of inland agricultural villages, due to the absolute limits of usable land resources and the adaptation to the marine environment with severe sea winds and waves or for the easy accessibility to the fishing grounds.

And also the managerial patterns of public-owned sea weed catching ground, which take each family as the unit of usership rather than an individual, seem to make the villagescape more compact and the size of individual residence smaller than that of inland agricultural village.

5. The folk shrine('Dang') systems, in perspective of villagescape, represent innate environmental cognition of island inhabitants above all other cultural landscape elements in the island. Usually the kinds and the meanings of island's communal shrine and its allocative patterns in island villagescape are composed of set with binary opposition, for example 'Upper shrine(representing 'earth', 'mountain' or 'fire') and 'Lower Shrine(representing 'sea', 'dragon' or 'water') are those. They are usually located at contrary positions in villagescape each other. That is, they are located at 'the virtual center or visual terminus(Upper shrine at hillside behind the village)' and 'the border or entrance(Lower Shrine at seashore in front of the village)'.

Each of these shrines' divinity coincides with each sub-system of island's natural eco-system(earth sphere vs marine sphere) and they also contribute to ecological conservation, bonded with the 'Sacred Forest(usually with another function of windbreak)' or 'Sacred Natural Fountain' nearby them, which are representatives of island's limited natural resources.

## 1. 序

###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定住地 즉, 취락(settlement)은 그 지리적 위치(site)에 의해 平地村, 林業村, 鑛山村, 漁村으로 구분되고, 주민이 종사하는 기능(function)에 따라 農村, 林業村, 鑛山村, 漁村으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평지촌과 농촌, 산지촌과 임업 또는 광산촌, 임해촌과 어촌은 마을 유형상 거의 일치된다고 보아 큰 구리는 없다(오 홍석; 1980. 17).

기본적으로 임해취락이 입지한 해안은 해양과 육지의 結節地帶이므로, 토지에 바탕을 둔 농업경제와 해양에 바탕을 둔 어업내지 수산업활동이 복합되는 半農半漁的인 특수한 산업구조를 취하는 바(ibid. 284), 농촌과는 상이한 토지이용 및 경관체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島嶼地域의 마을들은 위와 같은 산업구조의 차이외에 大洋에 의한 육지와와의 격리와 한정된 영토라는 근본적인 지리상의 특수성을 갖고, 이는 물자와 정보유통에서의 한계와 환경자원의 한정성으로 자원이용에 대한 生態學的 戰略을 필요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이 기욱; 1984. 1. 2). 또한 바다에 의존도가 큰 생활환경은 토지경제보다 더 불안한 것으로 어로작업에 따르는 위험성까지 가중되어 특유한 신앙과 민속이 自生的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최 진원; 1979. 6), 특히 육지의 文化中心圈에서 격리된 낙도의 어촌은 그 無形과 有形의 특수한 민속문화가 비교적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격리와 면적의 한정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의 독립된 生態系(ecosystem)로서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많은 생태학자들에게 생태학적 실험장으로서의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임 양계; 1980. 378~384) 民俗學者나 人類學者 특히, 민속문화와 생태계사이의 상호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는 文化生態學者(cultural ecologist) 또는 生

態人類學者(ecological anthropologist)들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SANG-BOK, HAN; 1977 int). 즉, 내륙의 농촌마을과 해안, 도서의 어촌마을은 그 기반이 되는 생태환경구조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상이한 생태환경은 그의 적응형태로서의 마을의 기본적인 공간구조형성은 물론 주민의 환경인식에 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섬마을의 생태적 환경은 물론 그 하부구조로서의 양자(기본 공간구조와 환경인식)간의 상호관계는 섬마을의 독특한 경관체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섬마을 경관의 연구는 그 대상지의 특수한 환경적 속성에 따라 육지마을경관의 연구와는 또다른 접근방법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정된 物理的 對象으로서의 섬마을(island settlement) 文化景觀의 형성요인과 그 결과를 독립된 生態系내에서의 주민들의 生態學的 適應樣式(patterns of ecological adaptation 物的, 社會心理的 측면 共히)속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그 해석의 방법(tools)으로 造景學的, 地理學的 방법과 더불어 生態人類學的 接近方式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상관광자원으로 인정되어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서남해 해역중 일부 권역의 섬마을들을 위와 같은 접근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 한국 섬마을들의 경관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려하며 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마을 경관연구의 입지유형적 범위와 그 방법론적 시야를 확대시켜준은 물론, 한국 해상국립공원에 있어서의 보존 및 개발의 기본방침에 새로운 자료 및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 연구의 접근방법

生態人類學은 인간생태학(human ecology), 민족생태학(ethno-ecology), 문화생태학(cultural ecology)등의 유사한 응용생태학적 개념들과 일면 혼동되어 쓰여온 바

가 없지 않으나, 그 전반적인 기초는 문화위주론(culturalogy)에 대항하는 일종의 문화유물론적 입장에서 출발했다. 즉, 문화를 문화 고유의 발전메카니즘에 의해 생성, 성장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질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보는 관점으로, 특히 energy원으로서의 환경에 대한 적응방식이라 할 수 있는 생계활동이나 기술, 분배체계를 '문화핵심(cultural core)'으로 보고, 여타 문화를 이에 종속되는 '문화잔재(the reat of culture)'로 보는 환경결정론적 관점이 이 분야의 초기의 견해였다. 그러나, 후기로 오면서 특히 Helm(1962)의 보다 진전된 환경개념인 'Oecumene(자연환경+사회·문화적 환경+인지된환경)'의 제시와 함께 환경결정론은 다소 발전적으로 후퇴하고, 환경을 문화의 '결정적 인자'라기보다는 문화의 잠재력에 대한 '제한장치'로 보기 시작하여 환경→문화의 일방향적 영향관계보다는 환경↔문화의 양방향적 상호관계 내지 이에 더하여 생태적 적응양식보다 역사적 요인의 우위론까지 포용하는 시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생태인류학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구체적인 인간의 문화 또는 행동양식은 특히, 식량자원의 생산기술, 경제적 협동방식, 단위사회의 규모(인구통제), 사회단위의 공간점유 및 이러한 것들을 증진시키거나 규제하는 사회조직의 양상등이며 이러한 기초적인 행동양식이 여타의 문화적 측면(종교, 의례, 환경적 가치관등)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그 반대방향의 상호작용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보인다(Victor Barnouw ; 1982, 43~49, 한 상북 ; 1974).

이러한 생태인류학에서의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인간집단과 환경과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마을'에서부터 최대단위라 볼 수 있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지만, 특히 해수로 인한 장애로 인해 외부와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치 못하고 이용가능한 資源의 한계가 분명한 도서지방 마을의 人間環境구조분석에 대해 더욱 유효한 관점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여러 도서환경 조사분석 project에서도 이미 많은 생태인류학자들이 참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정주지의 경관해석에 이용되어 왔던 조경학적 방법과 인문지리학적 방법외에 본 연구의 대상인 도서정주지의 경관해석에 있어서는 生態人類學的 觀點을 주요한 분석 도구로 추가사용키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인류학자들의 주요한 자료모집과 분석방법인 種族誌(ethnography)<sup>1)</sup>의 방식을 원용키로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일반론적 문헌연구와 현지답사를 통해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섬마을의 입지와 경관유형, 산업경제적 조건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섬마을의 생태환경적 특수성이 어떠한 환경인식(environmental cognition) 및 환경조성행위 (environmental action)를 결과했는가에 대해 생태인류학적 관점을 통해 해석해 보면서 그 외적 결과들을 조경학적인 경관체계로서 정리해 보려 한다.

이는 섬마을이라는 하나의 문화경관이 인간집단의 자연자원에 대한 생태적·사회적 적응양식의 결과로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응양식이 경관에 결부된 미학적 내지는 환경인식적 차원 까지도 지배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인식이 역으로 섬마을 경관의 형성에도 구체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제재가 주로 서남해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일부 지역 만큼(다도해 해상 국립공원내 총 8개 지구중 2개지구·도초지구, 조도지구) 관광계획적 측면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점도 모색해 봄으로 해서 연구의 현실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즉, 기존의 국립공원의 보전 및 개발정책이 줄 가시적인 경관자원에만 비중을 두었던 것을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 보전의 범위를 주민의 산업 및 거주활동은 물론 경관에 있어 비가시적인 다계층의 문화적·생태적 영향권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3. 연구범위(연구대상, 자료모집 및 분석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한국의 섬마을 중 서남해 일부 도서소정확한 기준은 아니나 육지와와의 거리에 따라 沿岸島嶼, 近海島嶼, 遠海島嶼에 해당하는 곳을 각기 한 곳 이상씩을 골라 가급적 각 사례 섬의 산업구조가 農業爲主型, 半農半漁型, 漁業爲主型과 일치되는 곳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육지에서 멀리 격리되어 있을수록 생태환경적 제약은 심할 것이며, 가용지의 면적이 좁을수록 어업에의 의존도는 커지고 따라서 생태적 환경이 생활환경 및 마을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육지마을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고고학, 인문지리학, 생태인류학적 보고서류와 개인저작물등의 문헌자료와 지형도·지적도등의 도면자료등을 그 기초

註 1) 民族誌 또는 種族誌: 관청의 공문서나 다른 여러 기관들 또는 개인의 사문서 내지 여행자·선교사·외교관등의 건문록을 바탕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현지 조사 및 인터뷰등을 통하여 종족의 생활양식을 자세하게 기술한 인류학적 보고서

자료로 삼았다.

실제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는 주로 해당지역 관청직원 및 대상지에서 여러대에 걸쳐 거주해 온 주요한 제보자들을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방식은 크게 대상지의 역사, 산업, 생태, 결관, 생활양식에 대한 상세한 조사표를 중심으로 행해진 형식면담(formal interview)과 현지체재시 우연히 이루어지는 비형식면담(informal interview) 그리고 문화지리학자들의 환경인식상태 조사방식인 '인지도(cognitive map)' 및 주민 생활행태관찰등으로 구분되어 행해졌다.

이들 자료의 조사와 분석은 주로 구체적인 섬마을의 경관체계와 주민 영향인자들과의 관계 즉, 주변도시 및 내륙거점지역과의 물적·인적 의존관계, 지형·풍향·조류·식량자원·기타 자연자원 등 섬의 생태환경적 인자와의 관계, 주민 고유의 환경인식특성과의 관계등을 고려해가며 이루어 졌다. 여기에서 섬마을의 경관체계란 크게 '주거경관의 체계(마을입지의 패턴, 개별 마을의 형태 및 주거양식, 음택으로서의 묘소의 입지와 형태등)'와 '산업경관의 체계(마을 주변토지 및 임산자원의 이용방식, 주변해변과 해수면의 이용방식, 거점지역과의 물자교류방식, 波市の 형태등)' 그리고 '儀禮景觀의 체계(의례의 종류와 의례장소의 입지, 의례행위와 장소의 환경생태적 의미등)'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이들 중 많은 부분적 현상들은 서로 중첩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 II. 韓國 西南海 섬마을의 景觀體系

생태인류학적 관점에서 크게 볼 때 농촌마을이 주로 토지에 의존하는 생태계적 적응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어촌마을은 바다생태계에의 적응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농민이 그의 작물 또는 축산동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互惠的(mutualistic)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어민은 수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寄生的(parasitic)이다. (SANG-BOK, HAN; 1977, 12) 또한 농민의 토지이용은 마을의 영역권과 개인의 토지소유권에 의해 제한되나, 바다는 어민에게 있어 소유의 제한선내지 境界의 觀覺的 指標가 있을 수 없다. 다만 해초와 조개채취장 등 수산자원의 고정적인 장소는 개인들 혹은 특정 주민그룹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ibid; 13-15)

우리나라에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有人島嶼들은 절대적인 거리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육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沿岸도서와 중간지역인 近海도서, 그리고 먼 바다에 위치한 遠海도서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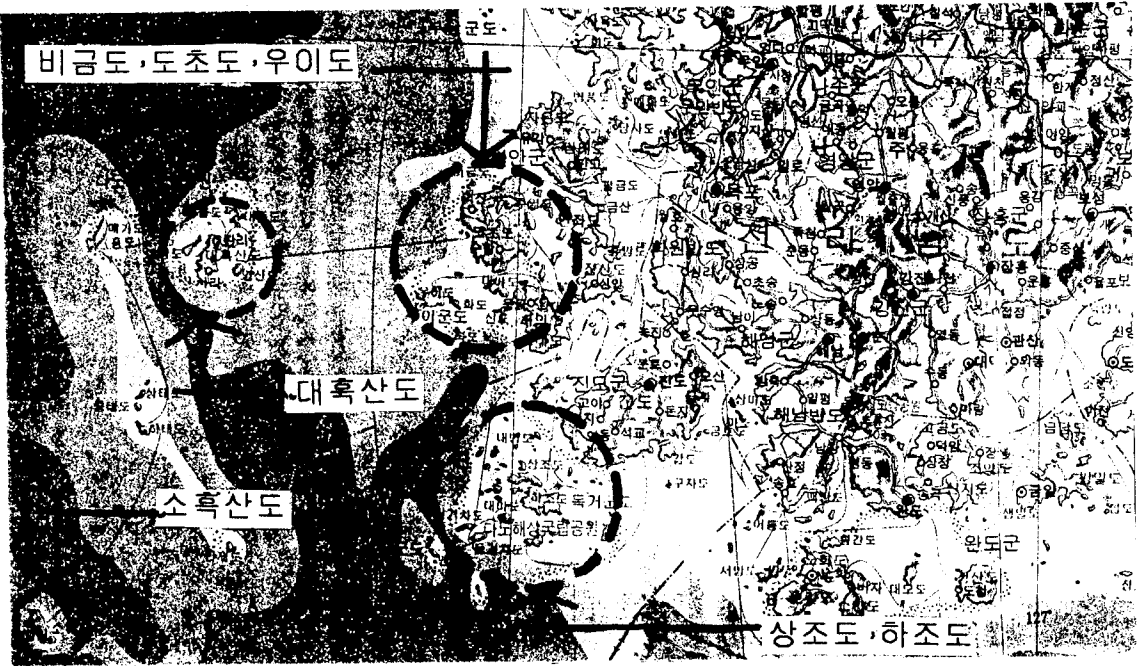
류될 수 있다. (최 덕원; 1984, 13) 이중 연안과 근해의 도서들은 주로 대규모의 섬들로서 농업과 수산업을 겸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완전히 수산업에 의존하는 원해도서보다는 도서적 특수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해 원해의 도서들은 대개 소규모의 섬들로서 섬지형이 중앙돌출적인 급사면으로 이루어져 경작가능지 면적이 적고 그런 이유에서 수산업 중 수산업 그중에서도 어업이 결정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취락의 발생과 발달과정으로 볼 때는 보통, 도서의 전입유민이 한반도로부터의 漁勞항로를 통해 유입되었으므로 아랫섬(남쪽섬)보다는 윗섬(북쪽섬)이 같은 섬이라도 남쪽 마을보다는 북쪽마을이 早期에 발달되었다고 보인다. (최 진원; 1979, 18)

### 1. 사례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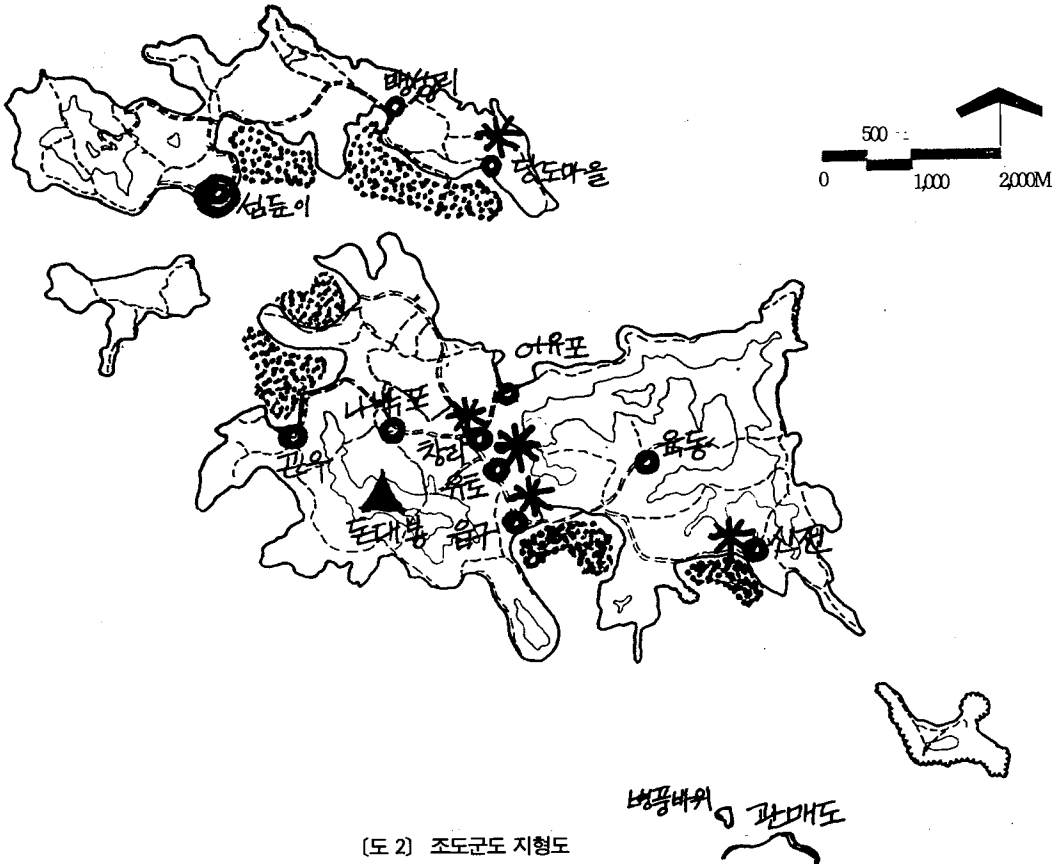
사례지역은 19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內 8개지구(1-금오도지구, 2-거문 및 백도지구, 3-나노도지구, 4-소안 및 청산지구, 5-조도지구, 6-도초도지구, 7-흑산 및 홍도지구, 8-만재도지구)중 (건설부; 1983), 3개지구의 7개 도서 즉 鳥島지구의 上鳥島·下鳥島, 都草지구의 飛禽島, 都草島, 牛耳島, 黑山紅島지구의 大黑山島·小黑山島(可居島)를 주민 대상지로 하고 있다. (도1~7 참조) 이들은 주로 서해와 남해사이에 위치한 섬들로서 절대적 기준에 의한 분류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육지와와의 거리로 보아 沿岸도서(조도지구), 近海도서(도초도 지구), 遠海도서(흑산도 지구)의 유형을 대표하고 있으며, 主産業으로 보아도 農業爲主(조도지구), 半農半漁(비금, 도초도), 漁業爲主(우이도, 대흑산도, 소흑산도)의 구조로 구분됨으로써 섬의 생태적 자원과 산업 이에 따르는 경관구조!!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하 내무부; 도서지, 이해준; 1984, 이 수애; 1984, 전 경수; 1983, 한 상복·이 기육; 1980, 노 회·이 창우; 1987, 이 해준외; 1987, 흑산면가거도 출장소; 1990, SBHAN; 1977등 참조)

### 2. 沿岸·近海島嶼(鳥島群島, 飛禽島, 都草島)마을의 生活과 景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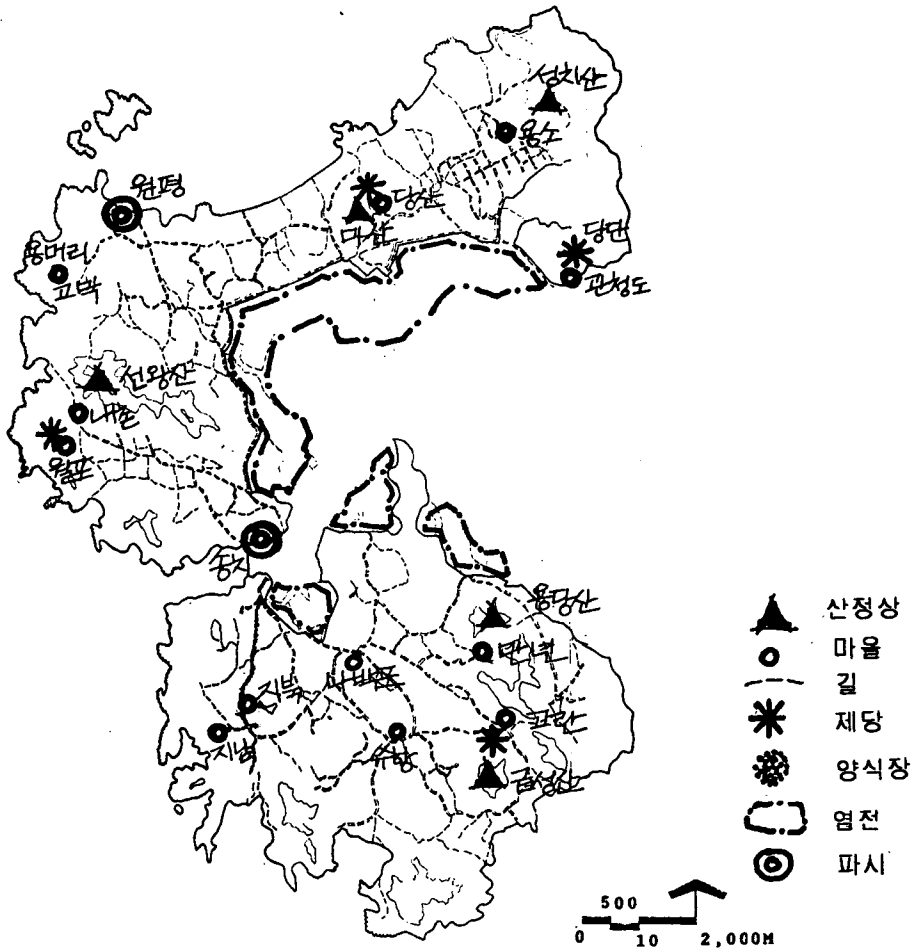
연안·근해 도서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위섬의 규모가 대규모로서, 일정치는 않지만 대략 직경 10km내외가 되는 하나의 지역(region)적 규모로 여기서 사례지로 선정한 조도군도 및 비금도 도초도는 행정구역상 각기 1개의 면에 해당된다. 이러한 큰 공간규모는 소규모의 원해도서에 비해 비교적 많은 가용지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 또한 반농·반어의 구조를 갖게되고 일반적으로 수산업보다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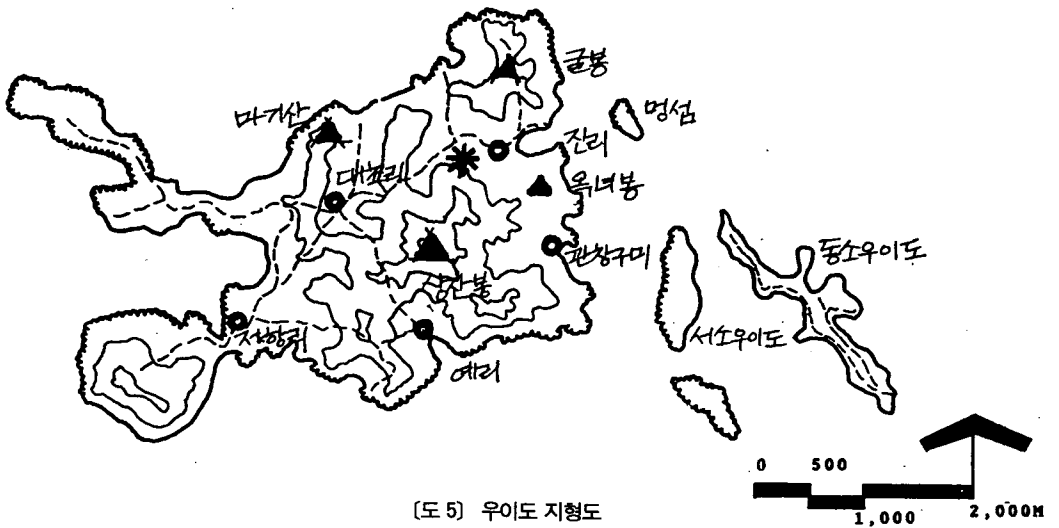
(도 1) 대상지역 위치도



(도 2) 조도군도 지형도



[도 3.4] 비금도 도초도 지형도



[도 5] 우이도 지형도



다. 실제 현장 답사시 해변의 일부 마을들을 제외하고는 섬내부의 경관의 대체로 내륙의 농촌경관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조도군도의 경우 상조도는 농업·수산업이 약 5:5, 하조도는 약 7:3정도로(인구비)농업의 비율이 월등하며 이는 비금·도초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약 7:3으로 농업이 우세)로 이러한 산업구조는 일견 어업의 자본집약적 성격과 주민 자본규모의 영세성에도 원인의 일부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안·근해도서의 경관체계 해석에 있어 그 공간의 규모상, 群島內 각 섬과 섬 사이의 관계 및 육지와와의 공간적, 사회적 관계를 고찰하는 巨視的 입장, 단위 섬 내부의 마을들과 자연자원의 경관체계를 다루는 中視的 입장, 그리고 단위 마을 내부의 구체적인 경관적 사항들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微視的입장의 세 단계로 나누어 조사·분석의 결과를 서술하려 한다.

해양에 의한 격리 및 한정된 영토라는 근본적인 지리적 특수성은 물자와 정보유통에 있어서 한계와, 환경자원의 한정성으로 자원이용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필요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옥: 1984, 1-2) 또한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인근도서 및 육지의 중심지와와의 교호관계에 있어 특수한 패턴을 보여주며, 이는 巨視的 관점에서는 섬 전체의 경관구조 즉, 주 부두 및 중심마을의 위치, 波市の 위치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섬 자체의 지형 및 산업형태는 단위 도서內 마을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육지농촌과는 또 다른 배치 및 交互패턴 즉, 中視的 관점의 섬경관을 형성시킨다. 그리고 제한된 육지면적과 자원 즉, 농경지와 食料作物, 用水와 燃料林, 海水와 바람의 기후인자등 생태환경의 구성요소들은 微視的인 마을경관의 결정요인이 된다.

조사시 주된 면담 대상자로서는 상·하조도의 경우 조도면사무소 강태봉(48세), 창리 이병연씨(76세), 읍구 배태배씨(81세), 육동 박은수씨(69세), 신전 김향동씨(45세), 비금·도초도의 경우 비금면사무소 김상덕씨 (49세), 도초부면장 김익수씨(51세), 고란리 고귀동씨 (60세)등이다.

### (1) 巨視的 景觀體系

거시적으로 본 도서지역의 경관체계는 전체 섬 지역의 경관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로 섬의 지형적 형성과정과 정주지 형성의 선·후단계, 마을의 입지유형, 그리고 외부지역과의 관련성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상조도의 경우 특히, 다수의 독립된 섬들이 해사의 자연적 퇴적 및 간척에 의해서 연속된 형태를 보이며, 하조도의 경우 만입된 지형을 간척에 의해 농토로 바꾼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형형성과정에 의해

상조도와 하조도 사이의 해역은 양 도서의 지형에 의해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 환경을 이루어 이곳에 태풍시의 피난항이 성립되고 波市(상조도의 섬둔이)까지 성립되어 있다. 하조도의 경우 간척 이전의 주 어업부두는 창리였으나 현재 간척 이후의 이곳은 농토의 중심부에 입지케 됨으로써 농업이 주산업이 되었다. 정주지의 형성 즉, 입도의 단계는 내륙과의 거리보다 당시의 주 어업경로에 의해 설명되는 데 단위섬 간에는 북쪽섬(조도의 경우 상조도), 단위 섬내에서는 남쪽 해안이(상조도-당도마을, 하조도-읍구) 먼저 정착된 것으로 얘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적등 물중으로도 뒷받침된다. (당도의 堂壇과 굴, 건물지, 읍구의 지석묘, 패총, 고려고분등)그러나 이러한 최초입도 마을들은 현재는 어업의 쇠퇴로 그 중심성을 잃게되고, 현재는 내륙의 거점지역(조도의 경우 목포; 행정과 거리는 진도에 더 가까우나 해류 및 주어장등과의 관련성으로 목포에 지역적 서비스 의존)과의 연결 교통 중심지 또는 그에 인접한 마을(상조도; 섬둔이, 하조도; 어유포 및 창리)이 중심마을이 되고 있다.

어민들은 그들의 衣食住에 있어서 자연자원의 한계 상 농민에 비해 자금자축성이 약하고 외부와의 경제적 교환활동이 비교적 높다. (SANG-BOK HAN; 1977, 15) 즉, 내륙의 중심지와 생산물교역의 양이 크데, 직접 의존하는 중심지는 지리적 거리와 행정적 소속보다는 주된 항로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通婚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내륙 중심지와의 의존, 종속관계는 상상이상으로 그 비중이 커져, 어민의 경우 섬내 타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보다 목포 거주 선주와의 관계가 더 깊고 通婚圈에 있어서도 목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섬마을의 풍습인 島內婚을 기피하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하조도의 창유리와 읍구는 능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으면서도 거의 통혼하지 않고 오히려 면내 他島와 통혼을 한다.

비금도·도초도도 마찬가지로의 지형형성과 정주지 형성의 과정을 밟는데, 연육의 범위와 그로 인해 형성된 단위 섬의 규모는 조도군도 보다 더욱 크다. 이곳 역시 연속된 비금도와 역시 연속된 도초도 두섬 사이의 해역에 주된 어업마을이 발전하는데 비금도의 松峙파시가 그것이며 이곳은 동시에 파도로 부터의 보호로 염전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다. 비금도의 경우, 연육 이전의 독립된 도서 권역들이 현재도 다른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東部(馬山以東), 中部(馬山과 仙王山사이), 西部(仙王山以西)지역이 각기 주산업을 달리한다. (동부는 염전업, 중부는 염전과 농업, 서부는 특용작물 등) 도초도의 경우 6개 도서가 연속된 것으로 이야기



되며 연육이전의 각 지역별로 각기 동족 마을을 이루고 있어 바다로 격리되었던 개별 섬 당시의 씨족사회의 흔적을 보여 준다. 특히 연육내지 간척 이전의 주어업 부두는 아직도 그 지명을 간직하고 있는데 비금도의 월포와 도초도의 나박포등이 그것이다. 마을의 성립과정은 한반도 서해의 주어업경로와 관련되어 설명되며 이에 따라 현 비금·도초도 서편의 우이도로부터 도초도, 비금도의 순으로 입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도서별 최초 입도 마을도 이러한 어업경로와 연관되어 주로 남쪽 또는 서쪽의 마을(도초도: 지남→지북→구항→고란, 비금도; 당두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는 역시 목포와의 교통요지인 비금도의 송치, 도초도의 나박포등이 중심지구조로 떠오르고 있다.

섬지형에 있어서의 마을들의 입지양식은 대부분 섬의 지형이 중심산지를 둔 원심형지형(convex type)을 갖고 있는 관계로 섬의 외주부 만입해안 즉, 해변과 육지부 경작지와와의 전이지대에 입지한다. 즉, 일반적으로 마을의 지리적 입지는 지형상의 遷移線(transitional line)에 주로 위치하는데.(박노식; 1963, 160), 이는 마을의 주산업과 긴밀한 연관을 가져,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대부분 산지의 경사면과 평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는 데 반하여(오홍석; 1980, 244), 어촌의 경우 물과 바다의 접촉선인 해안선을 따라 농촌보다 고밀도의 주거 집결형태로 위치한다. 이는 해안과 선착장과의 접근 및 수산업에 있어서의 공동작업의 필요성 때문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한상복외; 1985, 381), 대부분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1km이내의 거리, 해발고도 50m이내에 분포된다. (최진원; 1979, 17)

그러나 이와같은 연안 및 근해의 후기에 연육화 간척화된 대형 도서의 경우 애초 해안마을의 입지위치간척에 의해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산지부밀의 완경사지와 간척된 농토와의 중간부위에 입지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비금도; 당산, 내촌, 도초도; 나박포, 고란동), 그러나 애초의 지형이 변하지 않은 해안부의 어촌마을(하조도; 읍구, 신전등)들은 섬마을 특유의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전이지대에 帶狀배치를 보이며, 처음부터 가용지가 많아 농업이 위주가 되었던 마을(하조도 육동)은 육지 농촌마을의 입지양식과 같은 입지(산록 완산면과 평지와와의 전이지대)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전체섬의 지형경관으로 볼 때 조도면 내에서 제일 높은 산은 敦大峰(2308m)으로 조도 전체의 경관지표물(landmark)이며 전체 면의 주요 문체인 기름시는 면내 모든 마을사람들이 이곳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는 등 종교적 행위와 밀착되어 있는 곳이기도하다.

중심섬 근처의 주변 섬들도 환경인식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하조도의 경우 주 어업항로인 서남쪽 해역으로 부터 돌아올때 관매도 근처의 병풍바위는 關門으로 인식되는 집근시 환경지표물(landmark)이며, 하조도 신전마을과 관매도는 지형간의 풍수적 이유로(신전은 陰의 형상, 관매도는 陽의 형상) 통혼을 기피하는 등, 지형경관의 문제가 사회관습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를 보여주기도 한다.

## (2) 中視的 景觀體系(단위 섬의 경관체계)

거시적 경관체계가 섬과 섬 또는 섬주변 및 육지등 주로 외연적 내용을 다루었다면 중시적 경관체계는 주로 단위섬 내부의 경관체계 즉, 단위섬 內 마을과 마을간의 경관적, 사회적, 관계, 산업양식에 따른 토지이용패턴의 상이함, 섬내의 특이한 경관요소 및 장소별 설화등을 고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도서지역은 극히 원해의 소규모 낙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半農半漁型의 산업구조를 갖고, 연안의 비교적 대규모의 섬들을 빼놓고는 耕地의 부족과 지형에 따르는 용수의 부족으로 (凸형의 遠心의 지형으로 우수의 집적이 어렵다) 畝作보다는 田作이 위주이며 이의 보완책으로 放牧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의 목축업이 추가된다. (한상복, 전경수; 1977, 133, 이수애; 1984, 152) 수산업도 자본의 영세로, 일부 沿岸網漁業에의 선원으로서의 참여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海藻 및 조개류의 채취업과 양식업이 주류를 이룬다. (이수애; 1984, 173, 전경수·이정덕; 1982, 236)

섬마을의 산업형태는 과거에는 수산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농업이 주산업이 된 것은 근년의 간척사업 이후의 일로, 섬마을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환경인식은 이전의 어촌시의 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농촌마을들과 달리 이곳 섬내부 마을들 간에는 협동관계가 거의 없는 원심적 사회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섬의 지형상의 원심성에도 관련이 있으나, 어업자체의 비협동성(주로 선주와 뱃사람 또는 뚝장과 뚝주민들 간의 협동등 협동의 범위가 단위 마을을 벗어나지않는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하조도 창리, 유토와 읍구와의 관계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들 사이에는 통혼관계가 전무하며, 명절때 이들 양지역간의 경계인 고갯마루에서 씨름이 벌어 지는 것을 제외하면 마을간의 사회적 관계는 희박하다.

산업과 토지이용, 마을 입지유형과 관계를 관찰해 보면 어업 (또는 수산업)이 주산업인 마을들은 주로 섬의 외주부의 灣에 분포하여 해안선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보다는 밀집된 가옥배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안선은 수산물의 채취와 건조의 장, 선착장, 어구의 수선장이나 어린이 놀이터등 작업과 휴식 및 공공의 활동이 일어난다(Kyung-soo, Chun ; 1984, 24) “生活的線(line of life)”이며 이 해안선의 선형은 그 마을의 물리적 형태(physical form)를 가장 강하게 결정지워 준다. (G. G. Cullen ; 1962, 111) 이러한 해안선을 포함한 주변의 얕은 바다는 어민들의 환경인식상으로는 이미 생산성을 가지는 하나의 土地資源的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곳을 “갯밭”이라 부르기도 하며, 얕은 바다속의 해조 채취가 용이한 암초인 “여(磯; 갯바위)”와 더불어 때로는 개인적 소유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김재원 : 1957, 152) 이러한 해안선에 위치한 섬마을의 배후 공간은, 한정된 토지자원 때문에 거의 모든 산지의 가파른 경사면까지 경작이 이루어지며 심지어 집근처 빈 땅까지 菜田으로 채워져 섬내의 토지공간은 빈 곳이 거의 없다. (Kyung-soo, Chun ; 198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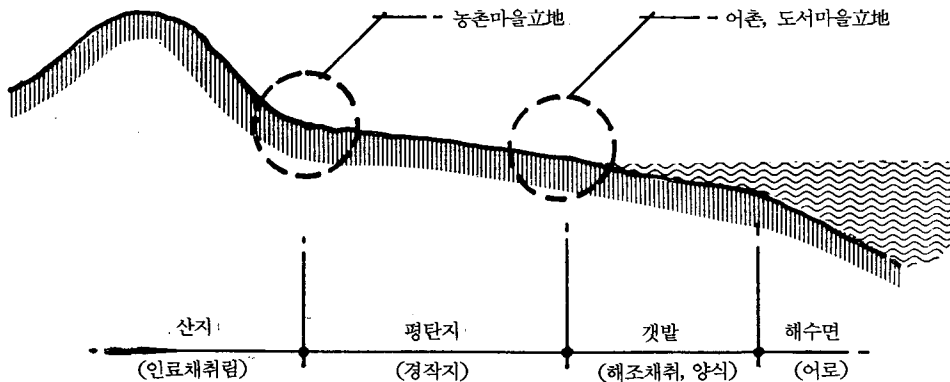
애초부터 주산업이 농업인 마을은 해안에서 떨어져 내륙쪽에 비교적 분산된 가옥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하조도 읍구와 육동 비교) 특이한 것은 염전지대의 가옥배치로 염전작업로 양쪽에 인접하여 대칭적인 분산배치를 보이고, 가장 고밀한 가옥배치는 역시 波市나 주부두의 상업지대이다. 파시란, 도서지방의 海上과 그 인근 포구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시 市場性 마을로서 이는 어촌의 산업이 자급의 목적보다는 외부와의 경제적 교류성이 크다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 위치는 각 종류의 魚族의 이동에 따라 계절적으로 이동해가며 개장되며, 이 기간 중에는 수백척의 고깃배들이 섬 근처 일정 해상에 운집하여 이 주변의 포구에는 일시적 遊興都市가 형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서해의 3대 파시인 黑山島와 위도, 延坪島 波市이다. (한상복외 ; 1985, 381, S. B HAN ; 1977, 51-52, 김재원 ; 1957,120)

단위섬내 마을간의 주된 통로는 해변의 각 마을을 섬의 중심지와 연결하는 방사형 도로가 주가 되며 부분적으로 바닷가를 따라가는 순환동선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어업마을의 토지이용은 상기한 바와 같이 배후수림(연료림)→경작지(주로 밭)→주거지(마을)→해변(어업·수산업의 부속 작업공간)→수산물 양식·채취장/염전(얕은 바다)→어장의 순으로 평행선을 이루는 토지이용패턴을 보여준다. [도8]

단위섬내의 대표적인 경관요소(주민들의 인식에 기초한)들은 주로 산업 및 환경인자와 긴밀한 연관을 보여준다. 즉, 비금도 城峙山의 龍穴과 龍沼 및 먼 전체의 기후제장인 고막마을 뒤의 龍머리 그리고 도초도의 龍塘山옆 긴밭(길이 70m되는 장방형의 밭으로 용이 지나간 흔적으로 구전)과 용샘등이 주민들이 설화와 더불어 인식하는 대표적인 특징적 경관요소들로 이들의 명칭과 의미에 등장하는 龍는 거의 다 어업 또는 바다의 신이며, 섬에서의 취약자원인 ‘물’ (좁고 돌출된 지형으로 인해 식용수 및 농업용수의 부족)을 주관하는 상징적 동물이기도 하여 섬주민들의 산업과 생태 환경에 기초한 특이한 환경인식을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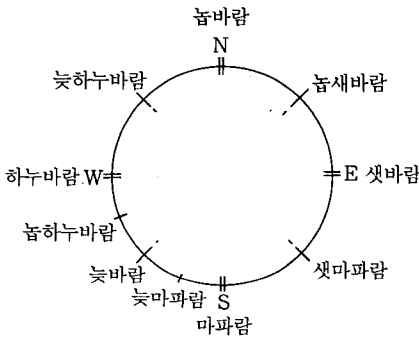
(3) 微視的 景觀體系(단위 마을의 경관체계)

이는 주로 단위마을 내부에 나타나는 보다 구체적인 경관적 사항들로서, 크게 보아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생활양식 및 지형·자원·기후등 자연인자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주거경관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인식을 표상하는 祭堂(마을굿당) 체계 및 그에서 이루어지는 의례행위와 특정 마을경관과의 관계등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도서지방의 환경적 특성은 마을내부의 공간구조와 개별주거의 재료 및 형식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즉 육지에서보다도 더욱, 바람(風), 물(水)의 생태를 안다는 것은 섬주민들에게 그들의 제한된 환경안



[도 8] 농촌마을과 도서마을의 단면적 입지양식 비교 (자료 : 필자작성)

에서의 摘應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技術의 대안등을 마련하는데 극히 중요하다. (K S. Chun ; 1984, 25) 실제로, 섬마을을 사람들에게 있어 風向의 인식은 이러한 여름철의 태풍과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에 대해 예민하고 실제 풍향에 대한 지방어휘의 종류도 북풍과 남서풍에서 보다 다양하며(이기옥 ; 1984, 12), 특히 그들 마을이 면하고 있는 방향의 風名이 발달해 있고, 바람의 絶對向보다는 주변 섬 또는 지형을 풍향면에 사용하는 등 相對向을 많이 사용하는 등(김재원 ; 1957, 140, 144, 전경수 · 이정덕 ; 1982, 321)의 환경인식적 특성을 보여준다. [도9]



[도 9] 도서주민 풍향인식의 상대성

(자료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 1983)

이들 환경요인에 따르는 섬마을의 주거배치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섬마을의 주거의 向들은 육지마을과 같이 南向일변도가 아닌 다양한 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섬의 토지협소와 원심적 지형에 기인하는데 실제로 비교적 규모가 적은 조도의 죽항도, 관매도의 주거는 대부분 북향이다. 둘째, 섬마을들의 주거배치는 일반적으로 농촌마을의 그것보다 고밀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복합적인 것 같다. 먼저 가용공간의 부족으로 마을전면 해변의 수산업 용도의 공간과 후면 경사지의 농토를 제외하고나서 海溢로부터 안전한 높이 이상의 이용가능한 주거용 토지공간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수산업의 노동과 분배구조가 단위 戶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른 분가와 핵가족화의 습성이 고정되었는데, (후술) 이것 또한 단위주택규모의 소규모화와 주거밀집의 요인이다. 이밖에 해풍과 파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 또한 주거밀집의 한 요인이며, 일부농업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 규모의 영세성등이 공동작업 공간등을 필요로 하지않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인 것 같다. 즉, 농촌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서의 “공동마당”은 토지의 협소와 산업형태의 차이로 인해 조성되는 일이 극히 드물어 해안의 砂場이 이를 대신하며 이와 더불어 用水의 부족으로 그 상대적 중요성이 배가되는 “공동우물”과 그 부근의 공지등이 마을의 公共空間(communal space)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K S. CHUN ; 1984, 7) 이런 결과로 현재는 농업화가 많이 진전된 연안·근해도서의 마을들도 그 주거의 결집도는 농촌마을보다 훨씬 더 하다.

이러한 태풍과 해일에의 적응은 개별주거의 재료와 형태에서도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섬마을 주택의 전체 높이는 낮고 基壇과 담장은 높고 지붕의 경사는 완만한 구배를 갖으며(최진원 ; 1977, 21), 굴뚝의 지표면에서 낮아 심지어 30cm 높이를 갖는 경우도 있다. (전경수 ; 1977, 10) 주택의 주재료는 섬 자체 임산자원의 제한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강풍에도 대비하는 이유에서 돌담, 돌벽이 추가된다. (이기옥 ; 1984, 13)

조도의 경우 관찰된 바에 따르면 집과 집사이의 골목길은 대단히 좁고(폭 12m내외), 집의 지붕높이는 낮은 대신 담 높이는 높으며 지붕개조이전 대부분의 지붕에는 새끼를 땀었다 한다. 또한 파도범람에 대비, 기단이 대개 높고 섬의 지형에 다른 식수난에 대처하여 각 호마다 양철지붕과 연결된 빗물저수탱크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바람과 파도등에 대한 대응은, 각 호 주택의 형태와 그의 결집형태 뿐 아니라 마을 공동으로 마을 전면 바닷쪽에 인위적인 방풍림을 조성한 경우가 많으며 (하조도 육동, 도초도 고란, 만년마을), 때에 따라서는 이 방풍림이 제당공간과 결합되어 禁忌관습(totem taboo)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관매도) 또한 주목할 만 하다. 또한 거의 저수지도 없이 빗물에 의존하는 섬마을 경작지에서의 농업용수의 부족은 농토 곳곳에 ‘포항(10m×20m×2m)’이라 불리는 섬마을 특유의 간이 저수용 둑병을 설치, 이용하고 있다.

이 밖의 일상적 목적의 환경자원들 특히 배후수림과 조류채취장 및 갯바위등은 대표적인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그 통제와 관리의 정도가 심하다. 해조채취영역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 분배방식등은 어촌마을에서의 사회체계를 파악키 위한 중요한 기준이며, 이 사회체계의 특성은 단위마을의 내부경관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섬마을의 사회체계는 한정된 자원보전을 위한 전략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한정된 지역내의 인간집단의 생활양식 즉 “文化”와, 한정된 자연자원 즉 “生態系”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제약상을, 생태인류학에서는 “自動制御의 相互連結作用(cybernetic interconnection)”이라고 하여 그 분야연

구의 주된 테마로 보고 있다. (Roger Keesing지, 전경수역; 1985, 198) 섬마을은 그 자원의 한계에 적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섬內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마을의 공동재산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촌의 부락조직인 漁村契조직의 관리하에 원주민 또는 외부인에게 유료사용케 하기도 한다. (한상복, 전경수; 1977, 12) 이러한 어촌계에 의해 운영되는 공유자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해조채취와 양식의 공간인 공유해역으로서, 이의 이용방법은 마을마다 다르나 곳에 따라 일부를 유료 사용케하여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쓰기도 하며(이수애; 1984, 170), 대부분은 공동채취, 공동분배 원칙하에 운영되는 데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은 “뚝” 조직이다. “뚝(또는 뚝뚝)”의 원래 語義는 한 마을 내의 소단위 주거구역으로(정진원; 1982, 73) 일반적으로 10개 가구 내외, 1개 班규모의 이웃집단(cluster)이라 할 수 있으며(자연보호중앙협의회; 1982, 392), 이러한 단위 “주거뚝”에 할애된 단위 “갯뚝(또는 미역뚝)”에 의해 해조채취장이 분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갯뚝 운영에서의 채취노동과 분배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닌 家口단위로 운영되며, 이러한 가구 단위 운영방식은 어촌의 가족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른 분가습속에 의해 어촌에 있어서의 단위가족 규모는 농촌의 그것보다 소규모 핵가족형태를 보이고 이것은 주거의 물리적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소규모의 3칸집을 일반화시키고 있으며(S. B HAN; 1977, 15, 37, 53, 55, 67, 이기욱; 1984, 14), 이 또한 자연환경에의 생태적 적응방식에서 결과한 생활양식이 마을경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예라고 하겠다. 이 밖에도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기욱; 1984, 23), 도서주민으로의 전입절차에 대한 까다로움(ibid, 23), 島外婚과 이른 분가습속(전경수·이정덕; 1982, 328) 등이 육지와 다른 섬마을의 자원생태적 전략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조도의 경우 주변산지에서서의 임목채취는 날짜별로 정해서 통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변의 갯밭과 여의 해조채취는 역시 공동으로 작업하여 공동기금화하고 있다.

이러한 연안·근해 섬마을의 주거공간 및 그 주변의 경관요소들의 특수성은 거의가 섬 특유의 생태환경과 그 적응방법으로서의 생활양식(산업구조를 포함하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 및 산업과 관련된 경관체계들을 물적(physical)생태환경에 대한 물적, 또는 사회적 대응양식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반면, 종교적 또는 문화적 대응양식으로서 섬마을의 祭堂體系와 묘소 기타 儀禮樣式에 의해 형성되는 또하나의

경관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는 주변의 생태 환경에 대한 주민의 환경인식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과 비교하여 불확실한 수확의 예측성과 어로작업의 상존하는 위험성은 어촌 특히 도서지방에 내륙보다 다양한 신앙 및 제의체계를 발달시켰고, 문화적 격리로 하여 이들 관습은 더욱 보전되어 왔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의의 종류중 土地, 海洋등 물리적 경관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는 마을단위로 행해지는 마을굿등의 공동제의(communal ritual)와 家口단위로 행해지는 가족 또는 개인제의가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葬祭와 멧고사 즉, 船祭가 있다. 섬마을의 타지역과 바다로 격리된 폐쇄사회성은 상호간 地緣共同體의 가능성을 높게 되고 또한 어로작업의 비가족단위의 협동성은 血緣중심의 결속력보다는 地緣중심의 결속력을 증가시키며 (이기욱; 1984, 36)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족단위의 祭堂이 어촌에는 드문 대신, 지역공동체적 마을제당이 풍부한 이유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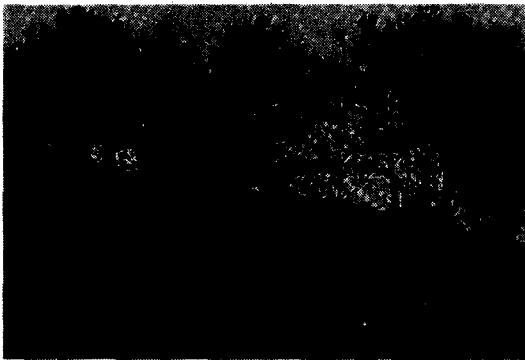
마을굿의 종류는 농촌의 그것보다 다양해서 여러 문헌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山神祭(혹은 堂山祭, 上堂祭), 거리제(혹은 中堂祭, 洞口祭), 龍神祭(혹은 下堂祭, 갯제, 독제, 쥐제, 뱀제, 蟲祭등의 다양한 체계를 갖는다. 이러한 제의의 대상은 ‘天神→地神→水神→기타 生物’등의 하강체계로서(한상복·이기욱; 1980, 178), 이는 ‘大氣圈, 地圈, 水圈, 生物圈’으로 이루어지는 全 生態圈(ecological sphere)과 일치하기도 하며, 크게 보아 上堂(성황당)과 下堂(용왕당)으로 구분되는 토지신과 어업신에 대한 2元的 제의체계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각 제당의 神格(당할머니)과 男神(당할아버지)으로 구분되어 豐作과 豐漁를 바라는 多産性的 기원을 상징하기도 하며(최덕원; 1984, 13), 이러한 제당이 위치한 곳 부근의 땅은 일종의 神域으로서 원시림으로 보존될 뿐 아니라 각종 토양미생물들의 서식처로서 자원생태계 보전기능도 함께하고 있다. (자연보호중앙협의회; 1983, 398, 전경수·이정덕; 1982, 357) 또한 섬마을의 用水資源의 희소성 및 중요성과 관련되어 섬마을제당은 거의 대부분 부근의 “堂샘”과 하나의 짝(set)을 이루게 된다. (S. B HAN; 1977,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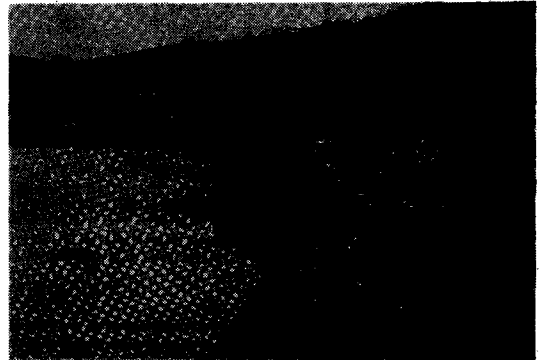
위와 같은 제의체계 속의 각 堂들의 위치는 특별한 景觀的 고려 속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하나의 섬이 입도주에 의해 定住地化되기 시작할 때 入島主는 먼저 마을의 수호와 풍어를 위해 명당을 골라 제당을 조성하게 되는데, 처음 형성된 큰당에서 分堂되어 中堂, 下

堂이 조성되기도 하며 이러한 당의 분화과정은 섬내 각 마을의 입도 순서와 그 연혁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최덕원; 1984, 125) 일반적으로 上堂은 山頂上 또는 山中에 위치하고 中堂은 山腹이나 山기슭에, 下堂은 洞口나 포구에 가까운 海邊 또는 해안에 가까운 갯바위에 위치하며( *ibid.* 136, S. B. HAN; 1977, 83-84, 113) 이러한 上下堂체계는 그 場所의 '中心性'과 '境界性' 인해 '들(入)堂'과 '날(出)堂' 이라고 구분되기도 한다. 조도면의 경우 현존하는 면내 13개 마을 거의 다가 당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당의 위치는 대개 산 중턱의 샘(당샘) 근처에 입지하고 주변의 기존 수림은 당수림으로 보존되어 대부분 원시림적 극성상을 이루고 있으며 하당의 경우 마을 주변의 큰나무 또는 해변 자체가 祭堂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제의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상당에서의 제사이후 하당으로 '불'을 가지고 내려와 용왕굿을 하고 그 이후 마을안의 길에서 거리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외에 전술한 바 있는 '취제', '충제'등도 행해질 때가 있다.

상조도 당도마을의 堂壇과 굴, 건물지등을 최덕원(1984)은 강원도 마니산의 산상제단과 비교되는 고대의 石城型 제당의 유형이라고 보아 가장 연원이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조도 창리의 당잔등(옛 당집자리)은 지금은 마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나, 간척이전의 지형을 생각할 때 이곳은 포구근방의 위치로서, 용왕당의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토의 제당은 당거리라 불리는 창리, 유토 경계부 갈랫길에 위치한 팽나무와 입석자리가 그곳이다. 이 창리와 유토 너머 읍구의 경우 上·下堂의 2원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은 산중턱, 하당은 마을 가까이 당샘 근처에 위치한다. 신전의 경우 上·中·下堂의 3당체계로 상당은 산중턱의 당샘 근처, 중당은 마을 중심동산의 팽나무, 하당은 마을 입구 해변이 시작되는 곳의 소나무 고목이 그것이다. 비급도 당산마을은 비급도의 東·中部를 가르는 馬山中턱의 팽나무 다섯그루가 당자리이며, 고란마을은 금성산 밑 마을 후면의 당집과 마을 입구(옛 포구자리)의 돌장승이 있다. 이러한 제당들의 마을 경



읍구마을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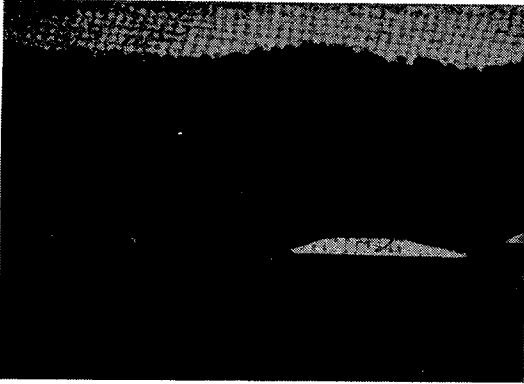
읍구마을 해변경관



읍구마을의 공동우물주변



신전마을 전경과 방풍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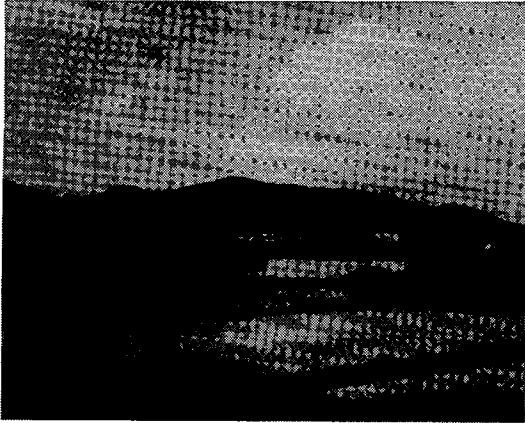


신전마을 상당(마을 중간 숲)



신전마을 하당(마을 입구 소나무)

<조도군도 주요지역의 경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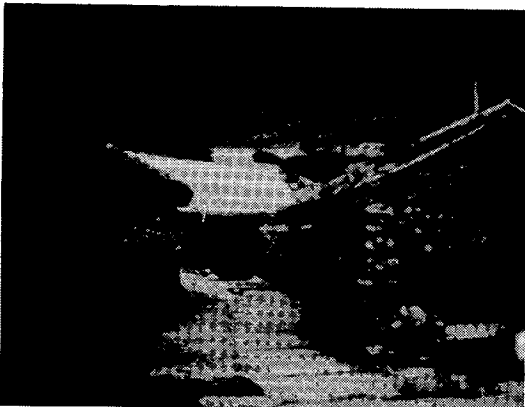


비금도 주변 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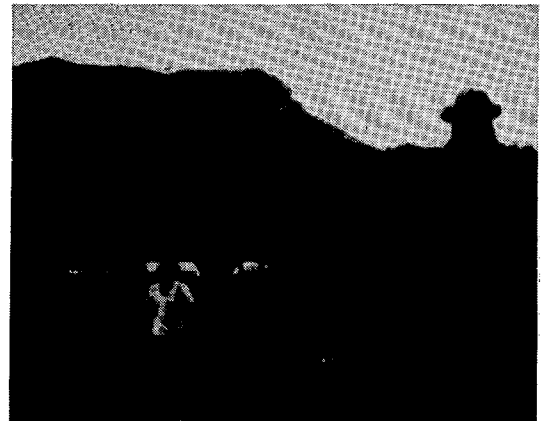


송치파시마을

<비금도 주요지역의 경관 사진>



고란마을내 소로



금성산·당집·돌장승의 경관 축

<도초도 주요지역의 경관사진>

관상 위치는 결과적으로 ‘마을의 뒷산 중턱’, ‘마을 전면의 포구입구’, ‘이웃마을과의 경계부’, ‘마을의 중심공간’ 등의 장소로서 마을 경관구조상의 ‘중심’과 ‘경계’라는 상징적인 위치에 입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입지와 의례체계는 각기 ‘山(육지 생태계)’과 ‘바다(해양생태계)’ 그리고 ‘마을(인간생태계)’의 생태환경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란 마을의 석장승으로 당의 의미도 갖지만 그 건립이유가 마을에서 바다라 보이는 급수산 배봉바위가 풍수상 惡山이므로 이의 壓勝을 위해서 배봉과 당집의 축선상의 마을입구에 세웠다고 하는데, 이는 제당신앙(shamanism)과 풍수가 결합되어 경관상에 표현된 복합적 상징경관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3. 遠海島嶼(牛耳島, 大黑山島, 小黒山島)마을의 生活과 景觀

서남해의 원해도서들은 연안·근해의 도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지형상 경사지가 많아 가용면적이 적다. 다시말해서 육지부의 환경생태적 조건이 열악하여 주로 바다에 의존하여 생활을 함으로써 농업보다는 수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적 조건은 육지의 마을과 비교해서 도서적인 특징을 더욱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해주며, 자연환경적 조건이 마을환경형성에 있어서 선택적, 제한적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결정적이라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조건은 주민의 생활방식과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구체적인 생태학적 전략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태학적 전략은 섬마을의 구체적인 경관과 그에 대한 認識相 그리고 이용행위에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牛耳島는 원래 흑산면 소속으로 소흑산도라고 불리웠으나 일제때 소흑산도명을 가거도에 빼앗기고 1962년에 도초면에 편입된 섬으로 거리는 떨어져 있으나 문화면에 있어서 오히려 대흑산도와 연계가 깊다. 즉, 이조시 水關鎭은 원래 여기에 있다가 숙종조에 대흑산도로 옮긴 것으로 현 우이도의 지명인 鎭里와 兎里가 대흑산도에도 그대로 존재함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의한 것이다. 소흑산도(可居島)는 대흑산도 남쪽으로 82km 떨어진 한반도 서남단의 낙도로서 면내에서 가장 높은 어업비율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어업도서이다. 이들 섬들은 대개 직경 5-7km 정도의 규모로서 그 규모상 근해 연안도서와 같이 巨視→中視→微視的 단계로 경관체계를 고찰할 필요

는 없고, 단지 단위섬 차원에서 섬내부의 경관체계를 보는 중시적 단계와 단위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내부의 경관체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미시적 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조사시, 주된 면담 대상자로서는 우이도 진리 문체옥씨(71세), 대흑산도 읍동 이인산씨(57세), 소흑산도 대리 고의숙씨(68세) 등이었다.

#### (1) 단위 섬의 경관체계

우이도, 대흑산도, 가거도(소흑산도)의 지형은 연안·근해의 섬들과 틀려 대개 하나의 主峰을 중심으로 2-3개의 부속 봉우리들이 연이어져 이루어진 평균경사 20% 내외의 돌출산지형 지형으로, 주변도서들과 사이에 바다가 깊어 연육의 가능성도 없는 단순한 형태의 지형이다. 그러므로 섬마을들의 배치는 거의 전부가 주로 외주부 해안만입부 환경사면에 원심적으로 입지하고, 마을간의 이동은 육로보다는 해로가 위주가 되며 각 마을간의 입지상 상호 연계성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연결 소로뻘고는 거의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류 또한 약한 편이다.

이 섬들 역시, 입도의 과정은 섬들의 서쪽 외곽 해역을 통과하던 고래의 어업 해로에 가까운 서쪽 또는 북쪽 마을들(우이도-대초리, 대흑산도-읍동, 가거도-항리)로 부터 시작되나, 근세 이후의 중심마을은 역시 목포와의 향운이 편리한 동쪽 또는 남쪽 마을들(우이도-진리, 대흑산도-진리, 예리, 가거도-대리)에 위치한다. 이들 섬의 주 산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산업이 위주이나 (소흑산도-85%, 대흑산도-63%, 우이도의 경우 내륙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방목과 특용작물 재배가 어업보다 다소 우위), 주변 수심이 깊어 양식업은 활발하지 못하고 대개 갯바위에 붙은 해조류의 채취업이 어느정도 행해지며 대부분은 어업이다. 사례지로 든 세 섬은 농업의 비중이 약하며 더우기 세 섬 전부 논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 밭위주의 농사이다. 그것은 지형상의 이유도 있겠으나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 우수의 집적이 어려운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마을의 입지는 해안 가까이 고밀도의 집락을 이루고 마을 후면의 환경사면은 밭을 이루는 전형적인 섬마을 경관구조를 보인다. [도10] 기본적으로 섬의 위주부에 각기 다른 향을 갖고 배치되는 섬내 각 마을들의 가옥 배치는 육지마을과 달리 동·서·남·북 각 좌향을 고루 보여주고 있다. 가거도의 경우 대리는 남향, 항리는 북향 일부, 대풍리는 동향 배치가 일반적이며 김지민교수의 보다 정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17가옥 중 남동-남서향 7채, 동향-2채, 서향-2채, 북향-3채, 북동향-3채)가 이를 뒷받침한다. (김지민; 1988)

이러한 단순한 지형에 입지한 섬마을들은 대부분 바람에 노출되어 있어 주거생활과 생업인 어업등에서 바람에 대한 인식이 특히 강하다. 가거도 대리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바람은 북풍인 하늬바람, 북동풍인 눈바람, 남풍인 파파람, 동풍인 셋바람, 남동풍인 셋마파람등으로(조경만; 1988) 주로 북→동→남쪽의 바람 즉, 겨울과 여름의 태풍방향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 실제로 남쪽의 태풍을 막을 수 있는 해안의 대형 무인도(소흑산도의 굴섬과 내·외 녹도)를 자연적인 방풍·방파제로 삼아 이에 의지 그뒤로 마을이 입지해 있다. 우이도의 경우, 겨울 바람의 통로가 되는 진리 북쪽 앞은 산허리에 바람막이성터가 역사적 유물로 존재해오고 있기도 하다. 섬의 주된 산업과 역사는 섬의 지형에 대한 주민의 환경의식과 깊은관련을 맺는 데, 그것은 주로 섬의 이름과 섬내 국부적 지명에 관한 설화로 부터 읽어 낼 수 있다. 우이도는 고래로 목축업이 주된 산업으로 牛耳의 지명(주 항로인 馬驕山앞에서 볼때 상산봉이 소귀를 닮아 보이는 데서 연유)과 진리 앞 무인도의 지명인 명섬(駕島; 소의 명에라는 뜻), 鼻島(코뚜레), 盧島(소먹이의 뜻) 또는 목축업의 多産기원을 위한 지형인식(서소우이도-男根形으로 봄, 동소우이도-女根形으로 봄)등이 목축업에 기반을 둔 우이도 주민의 환경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흑산도 이전에 수관진이 설치되어 있었던 군사요새로서의 우이도의 역사는 장군봉, 나발재, 馬驕峰, 마당재(군터), 목근내, 옥녀봉 등 將軍出進型의 풍수형국 해석을 위한 지명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심지어 우이도 진리의 당산은 主神으로 鐵馬가 모셔짐으로써 목축도서인 우이도의 산업과 군사요새로서의 역사를 한꺼번에 상징해 주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어업도서로서의 可居島의 경우, 섬지형의 창조설화에 등장하는 지형지물의 내력(\*回龍山과 外錄섬·內錄섬; 용왕아들이 변신된 용의 모습, \*仙女峰; 용왕아들과 같이 놀던 선녀의 변신, \*將軍바위-굴섬-; 용왕아들을 수행하던 용왕 신하의 변신)에서 어업의 주신인 '龍'을 경관해석에 이용하고 있는 점, 또는 전체 섬의 모습을 큰 자라 또는 물고기의 형태로 보아 대리의 또다른 이름을 鰻魚尾村이라고 부른 점, 이외 흑산제도 주변의 많은 유·무인도의 지명, 설화에 항해시의 안녕기원, 조난, 용왕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 점(흑산면 가거도 출장소; 가거도의 전설, 관광현황-행정용 미출판 유인물)등을 볼 때 섬주민들의 경관인식과 주산업 사이에는 본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읽어 낼 수 있다.

이 외에 한정된 토지공간을 가진 원해의 여러섬들은 과거로부터 墓制에 있어 특이한 형태를 보여 주는데,

우이도와 흑산제도 공히 아직도 '草墳'을 묘제로 이용하고 있다. 초분이란 관을 땅속에 매장하지 않고 일정기간 지상에 두었다가 脫骨된 후 뼈를 주러내어 매장하는 묘제로서(한상복·이기옥; 1980, 179), 이러한 묘제에 따라 형성된 묘의 단위규모는 내륙에서의 묘보다 월등히 작게 되며 이는 한정된 토지공간에의 적응을 위한 일종의 생태학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섬내부의 토지이용 뿐 아니라 주변해역의 공간이용 방식에 있어서도 원해로서 특유의 사회적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술한 바 있는 '뚝(갯뚝)' 제도이다. 섬외곽 해조채취구역은 섬내부 각 마을 단위 또는 마을내 하위 주거집단단위로 나누어 공동채취, 공동배분하는 일종의 사회제도인 이 뚝제를 우이도의 경우 우이도리의 3개 행정구역에 따라 유인도와 무인도 갯바위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 뚝장 책임하에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가거도의 경우 전 해안선을 크게 4구역(대리의 서쪽구역과 동쪽구역, 항리 구역, 대풍리 구역)으로 나누어 채취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구분은 실제로 섬내의 주거 공동체의 단위와도 일치하고 있어 대리의 동구와 서구는 사회적 결속은 물론 마을내의 공간구분도 중심도로를 경계로 양분되어 있다. 심지어 대흑산도 진리의 경우, 당제의 제관 선정시 뚝 구분에 따라 해마다 각 뚝별로 돌아가며 제관을 맡기도 한다. 이러한 해조채취에 있어 분배의 관습은 각 입호주(뚝의 회원이 되는 단위세대)별로 한짓(뚝)씩 분배되므로 가급적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이른 분가와 핵가족제도가 발달하였으며, 이는 한정된 섬마을 주거공간의 건축밀도를 높이게 한 한 원인도 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볼때, 섬마을의 한정된 생태적 자원과 그에 적응키 위한 생활 및 산업 형태 그리고 이에 따르는 특히, 바다에 대한 환경인식이 원해도서의 경관형태에 더욱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바다에 대한 환경인식은 공간상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에도 작용하여, 섬사람들의 시간인식은 음력월의 한달 중 각 날짜를 바닷물의 이동(물때)과 관련, 명명하기도 한다. (조경만 1988)

## (2) 단위 섬마을의 경관체계

원해도서의 섬마을들은 대부분 '背山臨海의' 입지를 하고 있으며…… 마을의 洞口 역시 해안 선착장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마을내의 가옥들은 높은 곳으로부터 들어서기 시작한다. (김지민; 1988) 가거도 대리의 경우, 주거입지는 상대적으로 표고가 높은 서쪽(서구)부터 마을이 성립되기 시작하여 동구 쪽으로 번어



나갔는데 그 이유는 서쪽의 대지가 여름의 주된 태풍(동남풍)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였기 때문이며, 각 마을내에서도 현재 중간 높이의 지대가 가장 먼저 정착되었고 그 다음이 보다 윗쪽(해안으로부터 접근성이 나쁘다), 마지막으로 방파제 공사등으로 파도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면서 보다 아랫쪽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리마을의 서구와 동구는 현재 갯뚝의 운영에 있어서도 구분되며, 어느정도 경쟁관계에 있다한다.

마을내 주거의 재료와 형태도 섬 특유의 환경조건에 적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 주거의 구조재는 입산자원의 부족도 있겠지만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자연석이 구조재로 쓰이고 있으며, 담과 집 높이는 거의 같거나 담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H. 20m내외) 지붕재료는 논이 없으므로 볏짚이 아닌 뒹(잔디류의 긴 풀로 별도 재배)가 주 재료가 되며 이를 보강하기 위해 '마삭'으로 지붕을 엮는다.

이 지역 주택은 대개 3칸형(안방, 마래, 정지 각1칸씩)이 기본이 되어 있는데 이 '마래'는 육지지방의 대청과 흡사한 기능의 공간이나 그 구조가 목재 마루를 깔지 않고 흙바닥인 것이 보통으로 이는 해풍과 해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대문의 向과 형태인데 가거도 대리의 경우 남향지형의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남향의 태풍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문은 가급적 남향을 피해 동·서향으로 내었으며 그 형태 또한 나선형의 '올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도11] 또한 마을내 주택배치의 상호관계도 가급적 윗집과 아랫집을 어긋나게 배치함으로써 태풍의 피해로부터 완화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마을 주변에서 수림이 가장 잘 조성, 보존된 곳은 제당지역과 묘소지역으로 먼 곳으로부터 가장 눈에 띄는 곳이다. 가거도 대리의 경우 주된 묘역은 서북쪽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선입도주민이 서쪽으로 부터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이유와 함께 그 윗쪽의 上堂(성황당)과 함께 이곳이 성스러운 지역으로 주민에게 인식되어 오는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각 단위 묘지의 형태는 대부분 돌담을 둘러놓음으로 해서 섬마을 주거의 외관과 닮은 꼴을 이루기도 한다.

마을 후면의 밭은 마을과 가까운 낮은 산록에 위치하지만 경사가 심하면 비가 오면 표토가 씻겨 내려가 토질이 박하고 돌이 많으며 그 위의 임야 또한 이 지역에서 많이 행해지는 목축업 특히, 방목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생태적 균형을 잃은 하나의 문제로서 인식,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전면의 해변은 육지마을의 공동마당과도 같

은 대표적인 公共空間(communal space)으로 특이한 환경조성행위는 없지만, 해산물 건조, 분배 및 각종 어구의 수리, 마을내 회의, 용왕제의 제의공간, 장제시 영결공간등으로 이용되어 마을생활에 구심점이 되는 생활공간으로, 이러한 해변을 포함하는 해안선의 형태는 각 섬마을의 형태적 특징을 결정지워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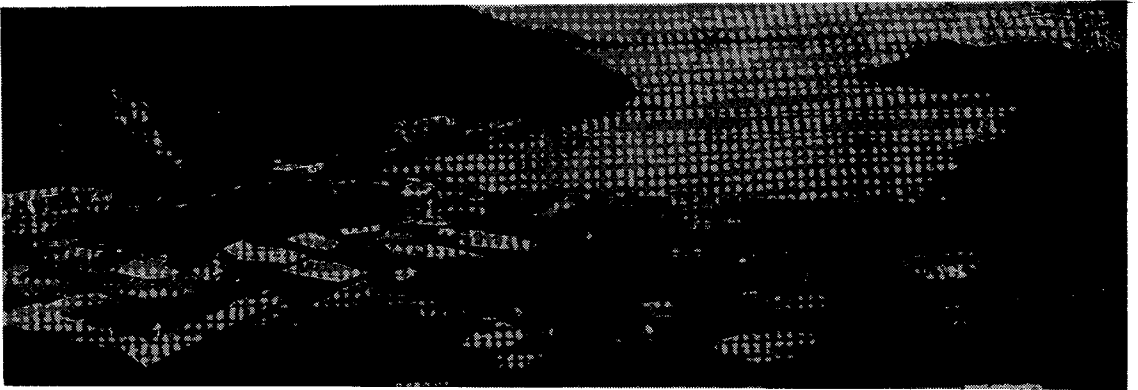
마을앞의 海面과 그 곳의 작은 유·무인도들은 수산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 주민의 환경인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대흑산도 진리의 겨우 마을 뒤의 象羅山을 鎮山으로 삼고 마을 앞의 大鳳山(섬)을 案山으로 삼고 있으며, 우이도도 역시 마을앞 駕島(명섬)을 안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可居島 大里 앞의 굴섬(장군바위)과 녹섬은 앞에서 섬의 창조설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했지만, 주민의 이들에 대한 인식의 강도는 대단하여 현재 진행중인 방파제 공사시 이들을 헐어 골재로 쓰려하는 것을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특히 여성들의 경우 굴섬을 헐면 마을내 남성들이 많이 죽는다 하여 못 헐게 함)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환경인식의 문제만이 아닌 태풍을 막아주는 지형지물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섬마을 제당들의 입지체계와 의례행위는 주민의 환경인식을 대변한다고 전술한 바 있다. 조사대상 3도의 각 중심마을들은 대부분 上堂과 下堂의 2원적 제당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의례행위는 상·하당제 이외에 취제, 거리제, 船祭등의 풍부한 의례습속을 갖고 있었다. 우이도 진리의 경우, 상당은 뒷산 상산봉 중턱의 은복개(당쟁) 근처에 자리잡고 있으며 하당은 그 밑 산기슭의 당제음식을 조리하는 곳을 하당이라 불렀다. 쥐당은 보다 아랫쪽으로 고목나무 밑 돌제단이다. 이곳 은타섬과 달리 거리제를 해변에서 하고 제의후 허수아비를 바다로 띄워 보내는 의식을 하는데, 이러한 의식을 타 섬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왕제라 칭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용왕제의 神格은 水神으로 일면 豐漁祭, 갯제, 독제, 魚場祭라고도 부르며,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구체적으로 주로 해변 또는 그 가까운 곳에서 행해지는 용왕제에서는 제물로서 허수아비등을 작은 배에 실어 바다로 띄워보내기도 하며(최덕원; 1984, 120), 때로는 船祭와 결합시켜 龍旅를 선상에 꽃고 용왕굿을 하기도 한다. (김재원; 1957, 90) 이는 육지마을과는 달리 그들의 주된 생태학적 영역이기도 한 바다에 대한 환경인식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의 특이한 쥐당은 쥐가 농작물을 해치는 부정적 역할도 하지만, 태풍을 미리 알려주는(태풍예측시 쥐들이 배에서 뛰어나온다) 생태적 지표로서의 중요성을 갖기도 하는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흑산도 진리는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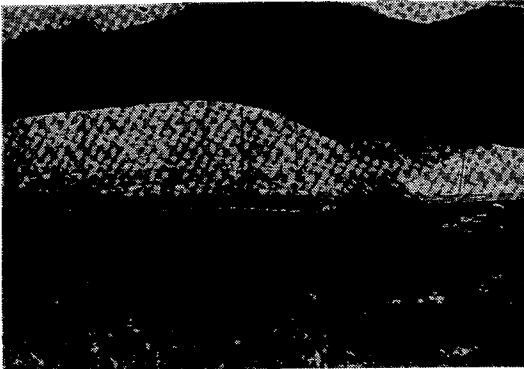
堂(성황당), 下堂(龍神堂)이 뒷산이 아닌 포구쪽으로 뻗어나간 돌출 능선상에 각기 당집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돌출능선의 지리적 위치는 진리와 읍동의 경계부이기도 하다. 이곳은 마을쪽에 가깝게 성황당이 배치되어 진리의 북측 경계를 표현하며, 바닷쪽 斷崖 끝에 용신당이 입지해 있어 이는 배가 마을에 들어 오고 나갈때 포구의 경관지표 구실을 한다. (실제로, 마을배나 외지배 공히 들어오는 배들은 바다로 부터 이 용신당을 향해 예배를 한다고 함) 상당의 주신은 익사한 배의 취사부(火匠)의 영으로 이 상당과 하당은 여러번 언급했던 ‘불’과 ‘물’의 양극적 대비 양식을 통해 그 의미를 강조한다고 볼수 있다. 의례의 순서는 타도와 거의 마찬가지로 상당제→용신제(제물을 바다 헌식)→갯제(용왕제, 독제라고도 하며, 제장으로서의 해변을 갯당, 용왕당이라고도함, 용왕제후 허수아비를 바다로 띄워보냄)→거리제→결궁(마을 내의 지신밟기)등으로 이어져 각기 山神→海神→地神을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특히 갯제시 각 배의 선주들은 각자의 배기를 도열시켜 함께 고사지내기도 하며, 이 갯제의 마지막에는 허수아비를 배에 실어 바다로 띄워 보냄으로써 바다와 배까지도 그들 주민들의 삶의 영역임을 확인한다. 가거도 대리의 상·하당중 상당(성황당)은 마을의 서북쪽 산허리(마을내에서 보이는 가장 높은 곳 또는 마을 전체를 바라볼수 있는 지점)의 가거도 새마을의 연결로의 교차지점에 위치하며 하당(용왕당)은 마을의 동단 굴섬앞 단애위에 입지함으로써 마을 동·서 양측의 경계 또는 서쪽의 선주민 영역과 동쪽의 후주민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당의 신격은 표류하던 스님(상당)과 역시 함께 표류해온 맹쟁 할머니(하당)로서 山과 海 그리고 兩性의 대조를 통해 多産과 豊饒를 기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가거도의 상·하당은 다른 도서의 제당 주변경관과 마찬가지로 가장 보존상태가 훌륭한 원시림 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진입시의 바다에서 볼 때 묘소주변 지역의 수림과 함께 가장 녹음도가 뚜렷한 경관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들 제당은 거의가 섬마을의 주거 및 묘소의 담장과 같이 돌담으로 둘러져 있어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신’의 거처에 일관되는 同形反復의 景觀을 보

여주고 있다. 가거도의 경우는 이 두당의 당제와 별도로 豊漁祭가 있어서 신달 그믐날 밤 산위에서 불을 피워 해변으로 가져오면서 고기를 부르는 절차가 행해지는데 이 역시, ‘불’과 ‘물’의 양극 대조를 통해서 육지와 바다 양극의 생태환경을 극적으로 통합시키는 상징적 환경행위라 볼 수 있다. 이외에 비교적 개별적인 의례행위로서 배고사(船祭)가 있다. 이는 주로 첫 진수시, 출어시 또는 년말년시, 명절 등의 각종 세시날 물이 밀려 드는 滿潮時 실시하며(有感呪術의 豊漁의 이미지), 이물뚫대에 長花를 꽂은 깃대를 달고 三色, 五色旗들을 여러곳에 세우며(배고사때 이웃과 친지들이 기증, 배고사시 걸어두고 평상시 뱃서낭옆에 보관, 滿船때기를 내걸고 풍물을 치며 입향), 뱃서낭(船王; 배의 主神)이 모셔진 대물명예와 四大租까지의 조상신이 모셔진 배 후미의 막간에 음식상을 차린 후 기원을 한다. (필자의 관찰을 보태면 현재는 동력선의 선장실이나 기관실에 뱃서낭을 이물앞이나 선원실에 조상을 모시고 있다) (조경만; 1988참조)이는 마치 가택의때 모셔지는 마루의 城主와 조상의 祀堂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어민들의 환경인식에 있어 ‘배’는 또 다른 ‘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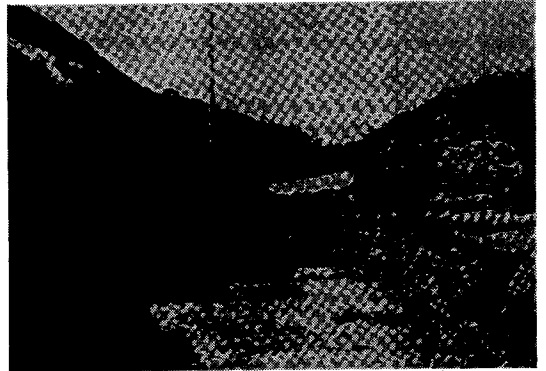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대후산도와 가거도의 주민 몇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는 마을을 임의로 그려보라고 하여 認知圖(cognitive map)조사를 해 본 결과, 대부분 지형지물로서 자기마을이 면한 앞바다와 그곳의 무인도 및 자기마을내 제당의 위치를 표기해 놓았다. 다시말해 섬사람들의 환경인식에 있어 바다와 제당공간은 그들이 느끼는 마을경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가거도 대리마을의 경우 최성환씨는 동구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사는 동구의 부분을 더욱 비중있게 그려 놓았으며 그의 그림으로 보더라도 낙도 섬마을의 주거밀집도를 알 수 있다. 고의숙씨의 경우 자기가 사는 서구의 부분 및 동·서구의 갈림길 특히, 섬의 창조설화와 관련된 지형지물(녹섬, 회룡산, 장군 바위등)을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다시 한번 바다와 바다 주변 지형지물들, 의례공간, 사회적 공간(동·서구의 경계) 등이 섬마을 사람들의 경관인식에서 가장 현저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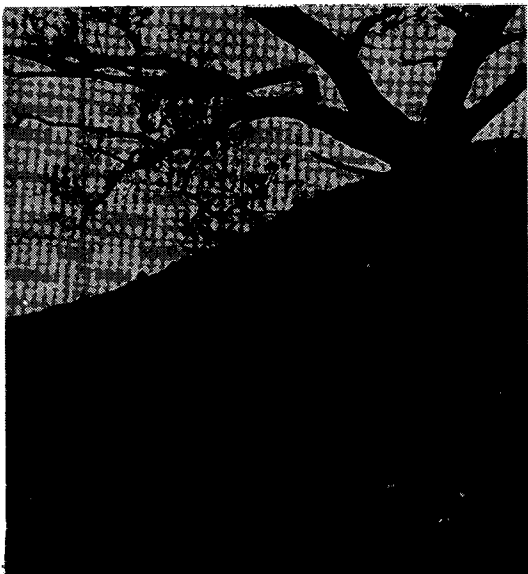
우이도 진리마을 전경(하당근처에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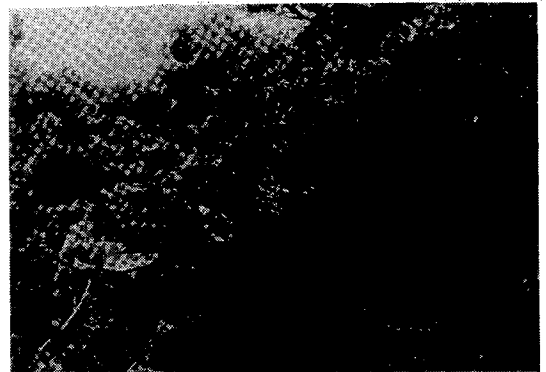
우이도 돌집



진리의 마을길



진리상당



진리 하당과 주변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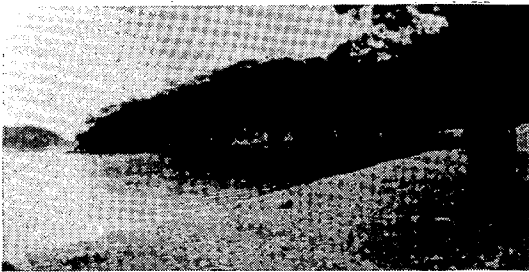
<우이도 주요지역의 경관사진>



대흑산도 진리마을 전경 (용왕당에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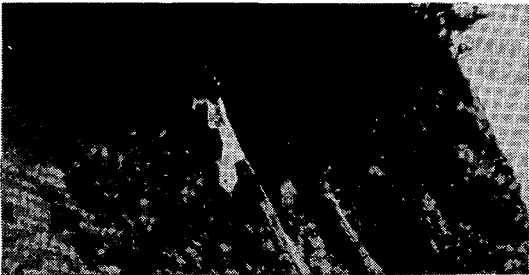
예리 파시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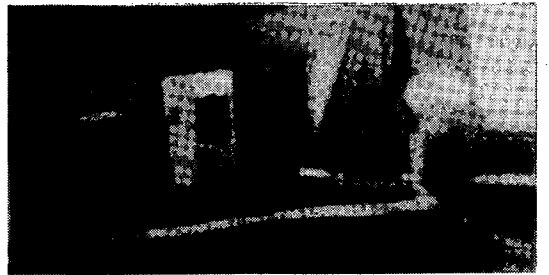
진리·읍동 사이의 당언덕(상당·하당의 자리)



진리 용왕당 (앞은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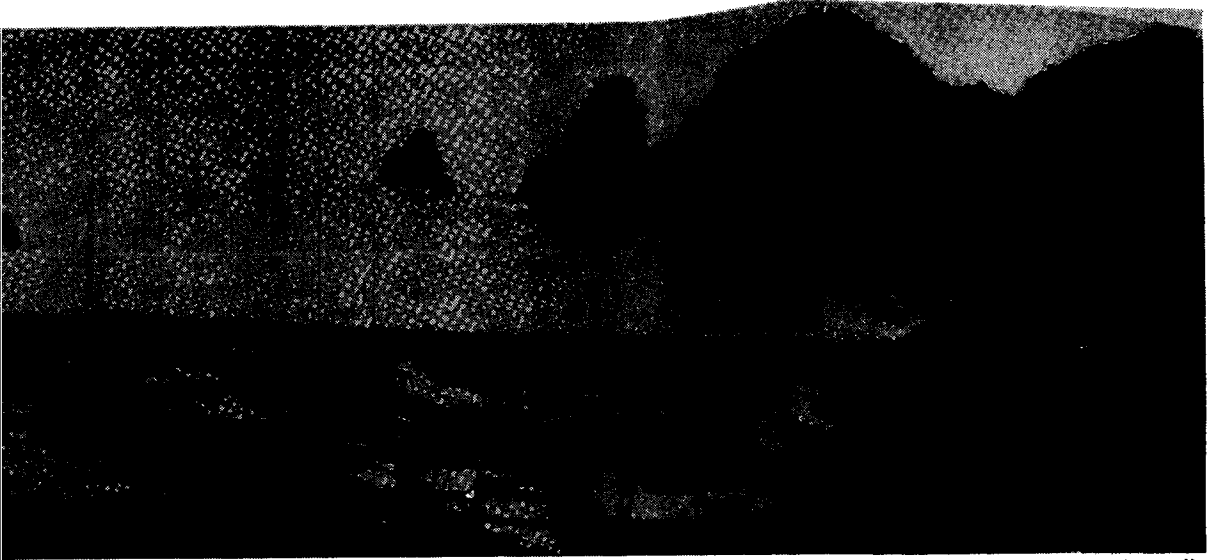


오색뱃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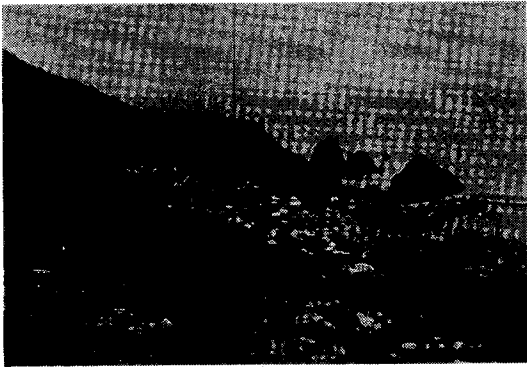


어선 선장실내의 선왕

[대흑산도 주요지역의 경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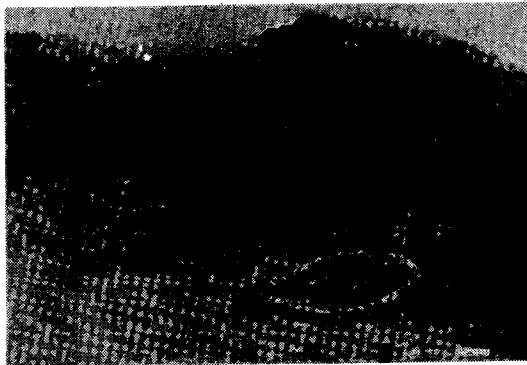
대리마을 전경 (좌·골섬, 우·녹섬).



상당밑에서 본 대리 전경  
(숲은 묘소지역주변 후박나무)



대리 동·서구의 경계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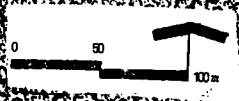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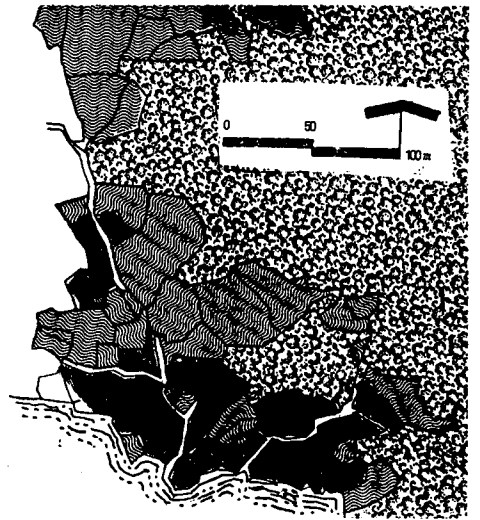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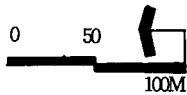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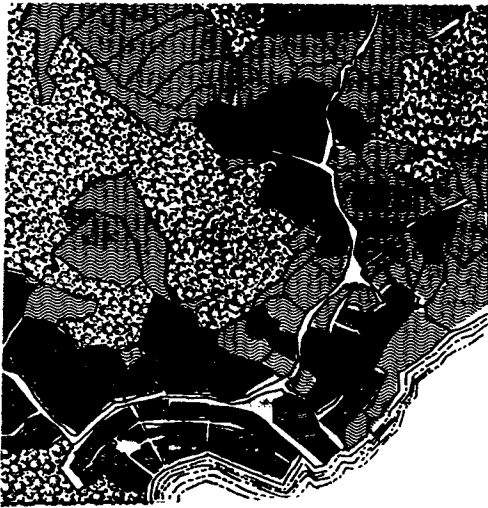


상당밑의 묘소와 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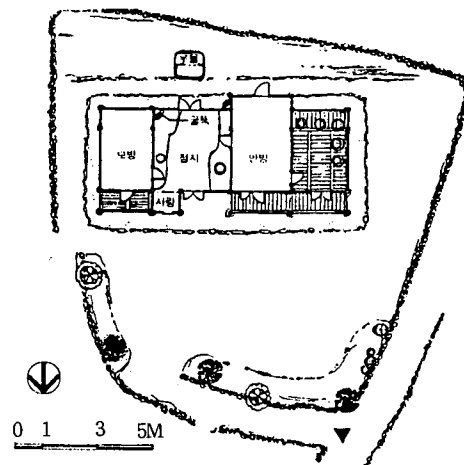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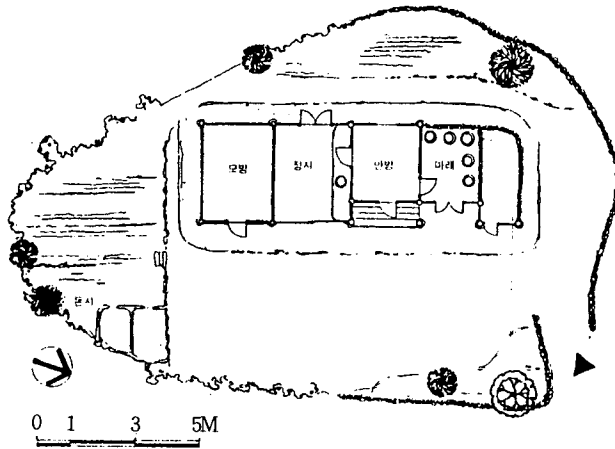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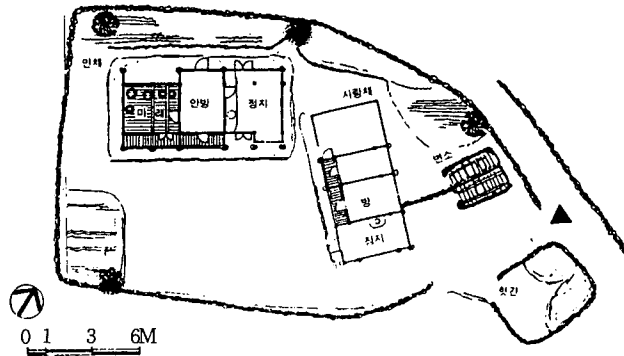


대리 상당

[소흑산도 주요지역의 경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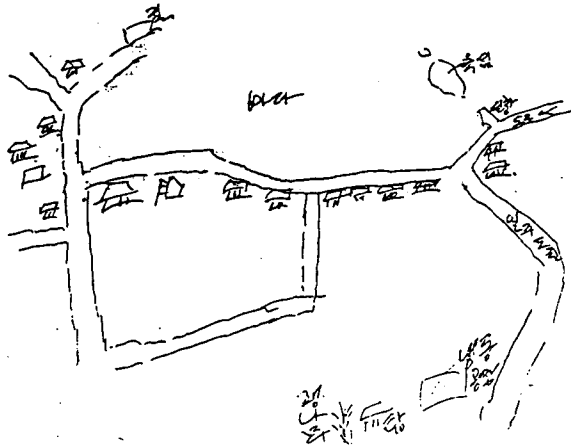


[도 10] 대흑산도 진리, 예리, 소흑산도 대리의 지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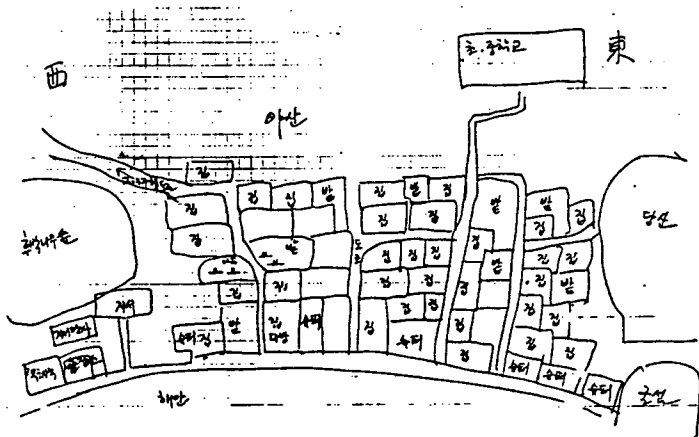


[도 11] 소흑산도 대리의 단위주거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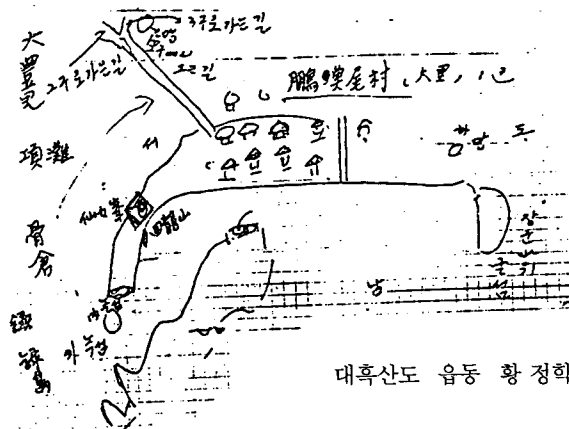
(자료 ; 김지민, 1988)



소흑산도 대리 고 의숙씨(7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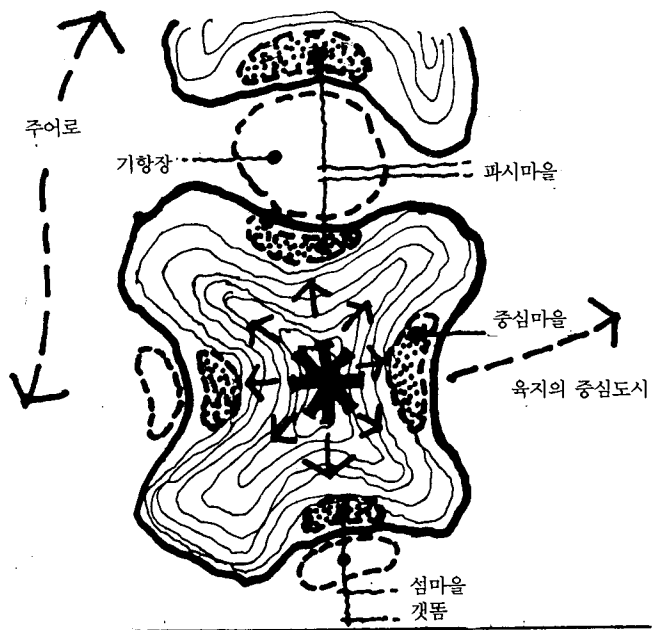
소흑산도 대리 최 성환씨(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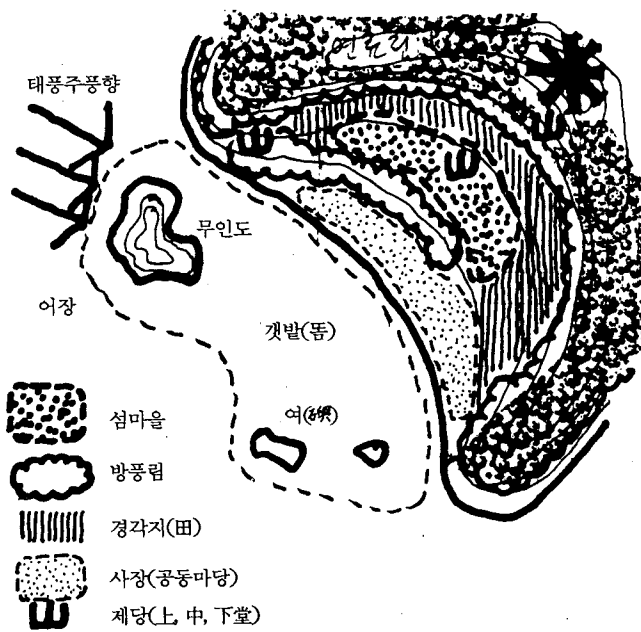
대흑산도 읍동 황 정학씨(52세)

[도 12] 흑산군도 주민의 환경인지도





[도 13] 인접 섬간, 단위 섬내 마을의 분포패턴



[도 14] 단위 섬마을내 주거, 산업 및 의례경관체계

### III. 結 論

섬마을의 물리적 경관은 한정되고 고립된 자원환경 속에서의 생태적 적응양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경관의 내적 구조에서 우리는 제한된 생태계내에서의 自動制御의 相互連結作用(cybernetic interconnection)의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수산업을 위주로 한 섬마을의 半農半漁의 산업구조는 그의 생태적 환경과 함께 단위 주거를 포함하는 마을의 입지, 공간구성등 경관의 제반사항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섬에서의 凸형 지형요인은 수렴형의 중심적 공간구조보다는 발산형의 원심적 공간구조를 갖게하며, 따라서 섬내의 마을배치는 중심산지 사방에 특수향으로 치우침이 없이 다양하게 배치된다. 이러한 이유로 섬마을들은 농촌지역에서와 같이 이상적인 風水形局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마을의 풍수적 결함을 주변 섬들을 포함하는 풍수설화로서 보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마을의 배치체계속에서 단위마을의 입지는 농촌에서와 같이 산지와 평탄지의 전이선에 위치하기 보다는 대부분 평탄지와 해수면의 경계부에 입지한다. 이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경계부로, 마을의 후면은 밭과 연로림, 마을의 전면은 연안수산업을 포함하는 漁場을 위치시키는 형태가 되며 이러한 생태학적 轉移線을 G. Cullen은 '생명의 선(line of life)'이라고 하여 경관상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섬들은 크게 연안 및 근해도시와 원해도시로 나뉘어 지는데, 현지 조사된 결과를 위주로 이 양자간의 섬마을 경관의 특성과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안·근해도시의 섬들은 대개 해사퇴적, 간척등으로 연육되어 규모상 하나의 지역적인 대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몇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 진다. 따라서 수산업보다 농업의 비중이 커 내륙의 농촌적 경관과 도서적 경관의 양면성을 갖는다. 또한 해사의 퇴적으로 비교적 완경사인 주변의 해역은 해조양식장이나 염전으로 이용됨으로써 더욱 순수한 어촌적인 경관의 비중은 적다. 그러나 연육이전의 어촌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존재하고 있어 주거의 밀집도는 원해도시보다 약하나, 내륙 농촌보다는 강하며, 수립자원의 한정으로 목재보다는 자연석을 이용한 가옥구조가 대부분을 이룬다. 섬내부에는 아직도 연육이전의 지명(島·浦등)을 갖고 있는 곳이 많으며 현재는 섬의 내부에 위치하여 바다로 부터 떨어져 있으나 당집(용왕당)등의 위치는 옛 해변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원

해도시는 연·근해 도시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주로 어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내륙과 비교하여 도서적인 특징을 더욱 강하게 보여준다. 대부분의 마을은 해안선에 밀집되어 있고 단위 주거의 규모는 소규모이며, 해풍에 거의 노출되어 있어 담과 대문의 양식이 그에 대한 적응을 보여준다. 특히 자연적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형·지물(인근 해안의 바위섬등)에 의지해서 마을이 성립되거나 방풍림 또는 방풍 축성등을 마을 주변에 인위적으로 조성키도 하며 이들은 설화 기타 제의공간과 결합되어 보존되기도 한다. 또한 바다에의 의존도가 높은 원해의 섬마을은 바다 특히, '갯밭', '여'등의 해조채취장을 하나의 토지자원과 다름없는 장소로 인식하여 매매, 상속등 재산권 행사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생산에의 예측과 안전성이 불확실한 수산업위주의 산업구조는 민간신앙 및 의례의 종류와 양을 농촌지역보다 다양하게 하는데, 이는 또한 산업노동의 형식상 혈연적 결속력보다는 지연적 결속력을 증대시켜 다양한 부락 공동체의를 형성케 하였다. 이러한 제의의 장소인 제당들은 도서지방특유의 체계를 갖는데, 마을 후면 산에 위치한 上堂, 타부락과의 경계 또는 마을 입구 해변에 위치한 下堂등이 그것으로, 이중 하당은 龍王堂이라고도 불리는 어촌 특유의 제당이며 이는 또한 葬祭, 船祭와도 때때로 결합하여 가장 비중있는 제의의 장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당체계는 각각 '天', '地', '水', '生物' 등 자연생태권의 항목들을 대표하게 되며, 이들 각 당은 또한 '당샘', '당수림' 등 섬 토지내의 제한된 자연자원과 결합하여 生態的 保全의 기능도 함께 하게 된다. 이러한 각 제당의 입지를 景觀體系와의 관련하에서 볼때, 경관인식상의 2대 분류체계인 '중심성'과 '경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중 산중에 위치한 상당은 '수직적 중심성', 해안에 위치한 하당은 마을을 포함한 토지역역과 갯밭을 포함하는 바다영역간의 '경계성'을 표현함으로써 섬마을 경관의 상징성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들 제당들은 연속적 경관을 고려할 때 하나의 시각통로상에 위치한다. 즉, 상당은 주변 수림들과 함께 먼 漁場으로 부터도 인지될 수 있는 항로에서의 시각표지물로 기능하며 하당은 포구에 다다를 때 비로서 인지되는 실제적인 마을의 結節의 視覺標指物(nodal landmark)이기도 한 것이다. [도 13, 14]

#### - 참고문헌 -

1. 건설부(1983) 한국의 국립공원
2. 노유희, 이창우(1987) 흑산제도의 개발전망과 자연보호대책, 자연실태종합조사보고서(제6집), 자연보

## 호중앙협의회

3. 문화재관리국(편)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편), 문공부
4. 박노식(1963) 향토지리조사법, 정음사
5. 신안군 : 흑산도 명소 전설집(행정홍보용)
6. 오홍석(1980) 취락지리학, 교학사
7. 이기욱(1984) 도서문화의 생태학적 연구,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8. 이수애(1984) 조도지역의 사회구조, 도서문화 제2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9. 이해준(1984) 조도지역의 역사적 배경, 도서문화 제2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0. 이해중(1988) 흑산도 문화의 배경과 성격, 도서문화 제6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1. 신순호(1988) 흑산지역의 사회·공간구조, 도서문화 제6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2. 조경만(1988) 흑산사람들의 삶과 민간신앙, 도서문화 제6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3. 최계원(1988) 흑산도의 산업·기술, 도서문화 제6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4. 김지민(1988) 흑산도의 전통민가, 도서문화 제6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5. 이종철·조경만(1987) 신안지방의 민속자료,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전남 신안군
16. 김지민(1987) 신안지방의 전통건축,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전남 신안군
17. 임양재(1985) 일반생태학, 이우출판사
18. 자연보호중앙협의회(1983)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조도지구 자연실태 종합조사보고서, 문화방송
19. 전경수(1977) 진도·하사미의 의례생활연구,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 전경수·이정덕(1982) 완도남단 인근낙도의 인류학적 조사보고, 자연실태종합조사보고서(제2집), 자연보호중앙협의회
21. 전경수(1983) 조도지구의 인류학적 조사보고, 자연실태종합조사보고서(제3집), 자연보호중앙협의회
22. Roger Keesing저, 전경수역(1985) 현대문화인류학, 입음사
23. 정진원(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9호, 서울대 지리학과
24. 진도군(1975) 진도읍지, 진도군청
25. 최덕원(1984)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26. 최성락(1984) 조도의 유물·유적, 도서문화 제2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7. 최진권(1979) 남해안 도서지방의 취락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지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8. 한상복·전경수(1977) 격렬비열도의 인류학적 조사보고, 격렬비열도 및 인근도서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한국자연보존협회
29. 한상복·김종호(1978) 남해안 거제도·인근도서의 인류학적 조사보고,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제14호, 한국자연보존협회
30. 한상복(1974) 환경과 문화, 환경논총 제1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31. 한상복·이기욱(1980) 서남해 비금·도초·우이군도의 인류학적 조사보고, 신안군 우이도 인근도서 종합학술조사보고서, 한국자연보존협회
32. 한상복(외)(1985)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출판부
33. 흑산면 가거도출장소(1990) 업무보고(행정홍보용)
34. 흑산면 가거도출장소 : 가거도 전설·관광현황(행정홍보용)
35. G. G. Cullen(1962) TOWNSCAPE, London, Architectural press
36. KYUNG-SOO, CHUN(1984) RECIPROCITY AND KOREAN SOCIETY, S. N. U. Press
37. SANG-BOK, HAN(1977) KOREAN FISHERMAN, S. N. U. Press
38. Victor Barnouw(1982) 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Y-ETHNOLOGY, Homewood, Dorsey press